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글로벌지역학석사학위논문

필리핀 교육 제도 변화가 교육 격차
해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K+12 교육 시스템을 중심으로

2023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글로벌지역학과

강한솔

글로벌지역학석사학위논문

필리핀 교육 제도 변화가 교육 격차
해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K+12 교육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 법 모

이 논문을 글로벌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글로벌지역학과

강한솔

강한솔의
글로벌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02월 17일

위 원 장 사회학박사 박 상 현 (인)

위 원 정치학박사 김 동 엽 (인)

위 원 인류학박사 정 법 모 (인)

목 차

Abstract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4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6
4. 논문의 구성	20
II. K+12 학제 변경의 배경	21
1. 필리핀의 교육 역사와 쟁점	21
2. K+12 학제 변경의 배경	26
3. K+12 학제 변경 내용	33
III. 학제 변경 이후 교육 환경의 동형화	41
1. 국제 평가의 참여와 교육의 현주소	41
2. 학교 인프라와 교원의 확대 추진	58
3. 졸업 후 취업 연계와 그 한계	64
IV. 교육현장에서의 ‘모두를 위한 교육’의 딜레마	67
1. 학교 인프라 확충과 정부 제정의 문제	68
2. 제도 변화 없는체로의 교원 수급	71

3. 동형화로 인한 교육격차의 확대	74
4. ‘모두를 위한 시작’, 그러나 ‘다수’의 탈락	77
V. 결론	80
참고문헌	83



표 목차

표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	17
표 2.	필리핀의 TIMSS 2003 결과와 TIMSS 2008 결과 비교	23
표 3.	K+12 학제의 기본 교육 커리큘럼	33
표 4.	각 지역의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12개의 주요 언어 (1~3학년)	36
표 5.	중등 교육의 주요 변화: 구조, 커리큘럼 및 평가	37
표 6.	중등 교육의 학습 영역 및 시간 할당	39
표 7.	필리핀 교육부의 직원분포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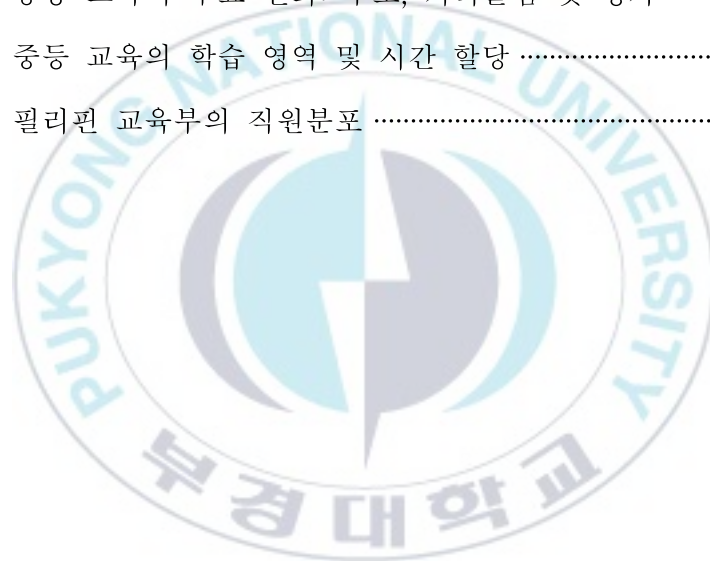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 이론적 틀	14
그림 2. K+12 학제의 구현 및 전환	40
그림 3. PISA 2018 읽기, 수학, 과학의 성적 정보	43
그림 4. 필리핀 공립학교 학생의 평균과 사립학교 학생의 평균 비교	44
그림 5. 필리핀 도시와 농촌의 학생 평균 비교	45
그림 6. 필리핀 및 비교 대상국의 15세 인구 대상	46
그림 7. TIMSS 2003 및 TIMSS 2019 수학 성적 비교	47
그림 8. TIMSS 2003 및 TIMSS 2019 과학 성적 비교	48
그림 9. 과학 수업 시간과 과학 성적의 관계	49
그림 10. 동남아시아 기초학습평가 필리핀 결과	51
그림 11. ASEAN의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 사이의 점수 차이	52
그림 12. 세 가지 시험 결과 - 최소한의 숙련도 비율	54
그림 13. 공립학교 2학년 수학, 과학 교과서 표지	55
그림 14.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공립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	57
그림 15.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공립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	57
그림 16. 2010~2020년도 교육 부문 예산	58
그림 17. 필리핀 GDP 대비 교육 예산	59
그림 18. 필리핀 교육부(DepEd)의 프로그램별 교육 예산 사용	60
그림 19. 학생 1인당 누적 지출과 시험 점수의 관계	61
그림 20. 공립학교 교사 수	62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Philippines education system changes on
bridging educational gap: Focusing on the K+12 education system

Hansol KANG

Department of Global Area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for anyone to succeed in life. On an individual level, education provides people with economic benefits, and on the social side, education grows the economy. In order to experience this educational effect, the education system must provide quality education. The Philippines, which has long maintained a 10-year education system, has decided to change to a 12-year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rovide quality education for all, and secure employment for its students. Understanding how 12-year education system have been introduced in the Philippines and whether they fit well is essential for this study, as we can grasp the politics, society, culture, and economy of the Philippine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 Philippines' new educ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education for all.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used in this paper. As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e analyzed the materials of the Philippine National Statistics Offic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evaluation material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fter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by distributing a questionnaire, several people were selected and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Not only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 the K+12 education system, but also students who graduated before the education system reform, parents, and teacher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among high-quality issues in the Philippines, they were selected from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 Manila City.

After the education system reform, the Philippines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evaluation, increased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teachers, and made changes such as employ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more education budgets and infrastructure are needed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problems such as a shortage of professional teachers have been pointed out. Also, the technology desired by companies did not match the technology taught in schools. Through this research, we grasp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adaptive ability between public schools and private schools in the Philippines. When external isomorphism occurs without considering variables, the adaptive capacity differs depending on the resources that each person has. Such adaptive capacity has also deepened educational disparities. The Philippines' new education system aims at education for all, but the increased cost of education has created a large number of dropouts. We should understand which parts are currently working and which are not working properly. While increas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measures must be taken to prevent many dropou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도구이다. 오랜시간 교육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견인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는 교육이 GDP와 개인 소득의 전능한 설명 변수임을 보여준다(Mincer, 1974).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주고 사회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모두에게 사회적 인정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기여하기도 한다. 교육은 개인과 가정에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성과 소득 증가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또 개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도 한다. 개인 수준에서 교육은 인격 형성에 역할을 한다. 소득과 취업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그들은 자원이 거의 없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은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응집력과 상호 이해에 기여하며, 잘 관리된 교육기관을 갖추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삶을 살아가며 도전하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길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더 나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기초 교육의 향상은 경제성장과 빈곤 해소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인격 형성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최고의 교육 제도는 교육의 질과 공정성을 결합한 것이다(OECD 보고서, 2012). 교육은 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식은 물론이고 가치와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본인의 목표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의 영향은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만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은 모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든 국가 및 국제기구들, 특히 개발도상국은 교육받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Glewwe와 Muralidharan, 2015).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제정과 인프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숙련되지 않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학생들, 세계적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한 교육적 진보의 필요성으로 인해 우려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이 제공 받는 교수·학습의 질적 부분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Chapman와 Adams, 2002).

전 세계에서 10년 학제를 유지했던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두 나라와 필리핀이 유일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나라로 유명했다(Nakanishi 1990).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한 후, 몇몇 고등 교육 기관들이 설립되었다(Tandora, 2003). 20세기 미국의 지배하에 필리핀은 미국의 공식 교육 시스템을 흡수했다(Tandora, 2003). 그 이후로 고등 교육에 대한 등록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런 추세는 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필리핀의 기초 교육은 문제가 되어왔다. 필리핀은 EFA(Education for All) 정책을 통한 초등학교로의 접근은 좌절을 경험했다(Okabe, 2013). 다른 문제들로는 학교들이 의무적인 교육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과과정에 주입해야 하는 혼잡한 교과과정과 높은 중퇴율이 포함된다(Okabe, 2013). 개발도상국인 필리핀은 교육 분야에서 수년간 재정 부족과 잘못된 운영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교육적 자원과 질 높은 교사의 부족 사태가 필리핀의 저학력 구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Krizia, 2018). 또한 필리

핀의 교육 예산 통계를 살펴보면, 필리핀의 교육은 예산과 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항상 문제 되고 있었다. 기초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늘릴 필요성과 함께, 필리핀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질적으로 또는 교육학적으로 개선해야만 했다.

수백만 명의 학생들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필리핀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필리핀은 21세기 도전에 직면하는 그들의 역량을 보장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enigno Aquino III 대통령은 K+12¹⁾를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교육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학생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필리핀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새롭게 학제를 개편했다. 12년 학제의 구현은 평생 학습과 취업을 위한 기본 기술을 가진 숙련된 학생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핵심 역량을 배울 수 있도록 2년간의 학제를 연장했다. 교육 이외에도 빈곤, 실업, 민족 갈등과 같은 고질적인 사회·경제 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필리핀의 교육 개혁은 이러한 오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아시아의 유일한 10년 학제 국가였던 필리핀의 사례에 집중하고자 했다.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목표에 의문이 생겼다. 따라서 이번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K+12 학제가 EFA에 기여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둘째, 필리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화되었을 때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이다.

1) 필리핀 정부는 K to 12 학제를 다른 나라의 K-12 학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 to 12 학제를 K+12 학제로 표기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필리핀의 학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는 학제 개편 과정에 관한 연구는 다소 존재하지만, 학제 개편 이후 필리핀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한계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 Krizia(2018)는 필리핀의 학제 개편 과정을 2013년 기본교육 강화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학제 개편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반응을 담지 못한다. Tan(2017)는 국가의 교육 제도의 구성, 재원조달, 질, 분배의 측면에서 필리핀의 교육제도의 구조를 제시한다. 필리핀에서 가장 최근의 교육 계획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

학제 개편 이후 필리핀 교사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Emma Garcia와 Elaine Weiss (2019)는 교사 부족의 규모와 근무 조건 및 부족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들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는 2015-2016 학년도 이전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 최초의 졸업생이 배출된 2018년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Bongco와 David(2020)는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5명의 필리핀 교사들이 교실에서 K+12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조사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법에 따라 교육과정 시행의 성공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 지방의 공립 학교 교사만 인터뷰 대상자가 되었으며, 이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들의 입장을 일반화할 수 없다. Trance(2018)는 재직 중인 교사와 예비교사, 학생 그룹을 분석하여 그들이 현대 필리핀 교육 시스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Krizia et al.(2022)는 K+12 구현에 있어 필리핀 교사들의 우려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00명의 교사를 대상을 설문지 기법으로 조사되었으나, 설문조사에 따른 추가 질문을 할 수 없었던 제한적인 상황으로 확인된다. Espinosa와 Datukan(2018)는 과학 교사들의 K+12 교육 과정에서의 화학 수업 경험을 분석하여 그들의 과제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다. 화학 교수법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수혜자인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과목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화학 과목만 평가되었으므로 전체 과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학제 개편 이전의 교육 불평등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Mesa(2007)는 필리핀의 교육 지니계수를 지역과 지방 수준에서 계산하는 첫 번째 연구이다. 학제 개편 이전에 분석되었고, 학제 개편 이전에 필리핀의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하다.

학제 개편 이후 필리핀 학교의 운영과 수업 환경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Perez(2018)는 필리핀 불라칸주(Province of Bulacan)의 고등학교의 운영 과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고등학교(Senior High School, 이하 SHS) 과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트랙에 따라 학생의 전문화 영역과 관련하여 SHS 프로그램의 전체 구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하나의 사례를 조사했기 때문에 필리핀의 전체 학교에서의 운영 과정을 알기는 어렵다. 불라칸주의 사례를 통해 전체 사례를 짐작해볼 수는 있다. Tajolosa, Parreno와 Tajolosa(2022)는 필리핀 고등학교 K+12 교육정책 시행 1년차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실 환경을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일부 교실의 상황들이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으로 증명되었다. Trinidad(2020)는 PISA 2018 데이터로 필리핀의 교육 자원과 학교 풍토 및 성취도 변화 등을 주목한다. PISA 2018 결과 하나만으로 필리핀의 교육 자원과 학교 풍토, 성취도 변화 등을 파악하기에는 변화된 학제를 판단하기 설부를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은 PISA의 테스트를 거친 적이 없으므로 기존의 데이터가 없고, 이는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신중해보인다. Barrot(2021)는 필리핀의 K+12 교육과정 개편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교육 4.0 환경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과학, 수학, 영어의 최근 커리큘럼을 분석했다.

학제 개편 이후 필리핀 학생들의 평가 결과 및 학생들의 준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Perante(2022)는 필리핀 동부 비사야 지역의 K+12 학제를 2020학년도에 졸업한 공학 대학 1학년 신입생의 수학적, 분

석적 준비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의 수학적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이 논문은 비사야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필리핀의 공학 대학 학생들이 수학적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Pagulayan, Asuncion, Tamayao, Vecaldo, Mamba와 Paat(2021)는 학생의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과 학생의 대학 준비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필리핀 루손섬의 북동쪽에 위치한 카가얀 밸리(Cagayan Valley) 지역의 한 주립 대학에 재학 중인 K+12 졸업생 6,62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에 따라 학생의 대학 준비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으므로, 추후 필리핀 전체 학생의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에 따른 학생의 대학 준비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에서 학제가 변경된 이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 변경된 K+12 학제로 인한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필리핀의 학제가 어떠한 배경에서 변경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자원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자원 및 분석틀

가. 사회학적 제도주의

신제도주의는 개인 행위와 개인 간 상호작용을 ‘맥락(context)’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맥락은 곧 제도를 의미한다(하연섭, 2016). 신제도주의는 조직연구에서 조직 환경이 지닌 사회적·문화적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조직을 단순한 생산체계가 아닌 사회적·문화적 체계로 인식하여 이해의 장을 넓혀나가고 있다(Scott, 2001). 신제도주의에는 역사학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있다. 특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문화라는 차원에서 해석하며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규범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상징체계나 인지적 기초, 도덕적 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Campbell, 2001). 제도는 단지 규칙, 조직의 표준, 절차와 통치구조뿐만 아니라, 관습과 습관으로 행위를 규정하기도 한다(DiMaggio와 Powell, 1983). Meyer와 Rowan(1977)은 조직이 사회 속에서

합리화되고 제도화된 지배적인 개념이 정의하는 실행과 절차를 채택하게 되며, 실행과 절차가 가져다주는 정당성으로 채택한다. 조직은 사회적 압력을 받는 가운데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공유된 인지를 조직의 구조를 채택하게 된다(Meyer와 Rowan, 1977). 제도화된 산출, 서비스 기법, 프로그램과 정책은 강력한 신화로 기능하여 조직들은 효율성을 위하기보다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에 순응하게 된다(하연섭, 2016). 인간의 행위는 개인이 속한 사회관계 안에서 정당성에 따라 적응한다. 즉, 선택보다는 당연시되는 인지 대상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따라 ‘왜 현대의 조직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기능과는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하여 DiMaggio와 Powell(1983)은 동형화, Meyer와 Rowan(1977)은 ‘신화와 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특성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워싱턴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금융기구, IMF, WB 등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이다.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로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를 삼자는 합의를 의미한다. 워싱턴 합의의 내용으로는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 규제 축소,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경쟁력 있는 환율 제도의 채용, 자본시장과 자유화, 관세 인하와 과세 영역 확대, 정부예산 삭감, 경제 효율화가 있다. 이는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세계 경제 시스템을 미국의 기업과 자본에 친화적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바라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필리핀의 Jose Maria Sison(호세 마리아 시손)은 신자유주의의 병폐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 경제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본가들에게 대중은 착취당하고 억압당한다. 필리핀 역시 소수의 엘리트들이 국가의 자원과 사업을 통제해,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 빈부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개발도상국에서 천연자원과 사람들을

착취한다. Sison은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Sannadan와 Lang-ay, 2020). 교육 환경에서의 변화는 기업의 요구에 맞게 수정되고 공장에는 노동력을 공급한다.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학교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Davies와 Bansel, 2007). 국내 대학들은 똑똑한 졸업생들을 세계적인 대학에 보내고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만 받을 수 있는 기회일 뿐이며, 대부분의 학교는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남아있다.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는 세계 시장에서 단일화된 기준으로 통용되는 규칙 혹은 규범이다. 표준 교과과정을 통한 학교 교육 시스템은 국가 상호간의 공통적인 구조를 가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Meyer, 1996).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졌음에도 동형화된 구조를 가진 교육 제도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국가들은 자기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구조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일부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라도 구조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세계 사회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창길, 2008).

다. 교육의 세계화

Spring(2009)은 교육의 세계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세계 문화 이론'과 '교육적 차용'이라는 유용한 개념을 소개하였다. 세계 문화 이론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대중 교육의 확산과 획일적인 교육과정은 국가라는 서구적 개념의 확산에 수반되었고 국가 정책 지도자들은 최고의 교육 관행의 세계적인 흐름에서 선택한다. 세계 문화 이론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지어 교육적인 다양한 사회적 차원에서 공통된 세계 문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세계 교육 문화가 존재한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교육제도와 제도가 있지만, 이들 국가의 제도와 제도는 장기적으로 공통의 이상적인 형태로 그려지는 것처럼 융합되어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교육은 세계화, 기술 진보, 교직의 평등주의 원칙 추진, 변혁적 교육과 같은 사회 정치, 경제, 기술 및 학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와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21세기 세계에서 번영할 준비가 된 평생 학습자를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이 스스로 설계하도록 압박하였다(Abisaki, 2015; Laal, 2013).

K+12 학제를 시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수용하고, 인력을 대체하고, 기술력 개발을 강조하는 변화(Sannadan와 Lang-ay, 2020)는 필리핀의 교육이 신자유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Sison(2015)은 초등 교육에서 상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학교 개혁의 예시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가 단지 세계화에 따라가기 위함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 시장에 숙련된 노동력을 더 많이 비축하고, 임금을 낮추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더 많은 유능한 노동자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12 학제 중에서 추가된 2년의 교육 과정은 기술 및 생활 교육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리핀의 핵심 국가들과 대기업은 필리핀의 새로운 학제 개편을 반겼다. 호주 국제개발처(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 미국 국제개발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세계은행(World Bank)은 필리핀의 K+12 학제 개편을 반겼다(San Juan, 2015). 필리핀 합동 외국 상공회의소(Joint Foreign Chambers of the Philippines, JFC)와 필리핀 다국적 기업 연합 지역 본부는 필리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이하 DepED)와 K+12를 지지하는 협정각서(MOA)를 체결했다. 새로운 교육 개혁은 이러한 핵심 국가들과 대기업이 주목할 만한 이점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인상적이지 않은 세계 무역 성장률로 인해 악화된 그들의 수익률 하락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필리핀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또 다른 징후는 기술 관련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 교육 과정의 필수 과정인 인문사회과학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필수 과목이었던 인문사회과학 과목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대학들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더 수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인문학과 같은 한계적이거나 비판적이라고 인식되는 프로그램을 제거하였다.

현재의 지역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은 또한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추구하도록 영향을 미쳤고 이민자들의 유출을 증가시켰다. 이민을 발전의 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국제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이민 정책이 다른 이민자 파견 국가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필리핀의 2년제 고등학교의 트랙 기반 기술화 교육 과정은 대부분 외국 자본가 기업과 현지 파트너의 구체적인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의 필리핀 교육의 기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가사 서비스, 도축 작업, 용접, 서비스직 및 돌봄과 같은 국가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여러 과정은 터무니없이 해외 직종에만 적합하며 간호사 및 콜센터 서비스와 같은 해외 사업에만 도움이 되고 있다. 필리핀 K+12 프로그램의 노동 수출 지향성은 시작부터 분명했으며,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1990년 태국 줌티옌에서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및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 회의, 줌티옌 회의를 개최했다. 처음 시작된 국제 이니셔티브로 확장된 학습 비전을 지지하고, 2010년 말까지 초등 교육을 보편화하고 문맹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10년 후, 많은 국가들이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국 정부, 시민 사회 단체 및 개발 기관의 광범위한 연합체가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다시 만나 2015년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 EFA는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세계교육포럼 2000).

2015년 전 세계 국가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가지 의제인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설정하였다. UN이 수십 년 동안 수행한 작업을 기반으로 SDGs가 시작되었고, 2030년까지 17가지 목표와 세부 목표 169가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SDGs 4번 목표는 교육에 관한 목표로, 초등 교육에 초점을 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발전하여 더 포괄적인 범주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초등 및 중등 교육뿐 아니라 취학 전 교육 접근성,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등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의 기회 제공을 강조한다. 또한, 교육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보장 이슈도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오랜 시간 유지해오던 10년 학제에서 K+12 학제로 개편하였다.

라. 동형화 이론

각 정부는 이질적인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질적인 정부들이 실제 장으로 구조화되면서 정부들 간의 정책을 서로 유사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 이러한 힘에 의해 조직은 제도적으로 동형화된다는(DiMaggio와 Powell, 1983). 동형화가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은 정치적 압력과 정당성 문제에서 야기되는 ‘강제적 동형화’, 불확실성에 대한 표준적인 대응에서 초래되는 ‘모방적 동형화’, 전문화와 연관되는 ‘규범적 압력’이다(유홍준·정태인, 2013). 동형화(isomorphism)는 어떤 조직이 동일한 환경조건에 직면한 다른 조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사성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확대·강화되는 경향이 있다(Lowndes와 Roberts, 2013).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50년 이상 동안 모든 수준의 교육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ADB는 교육의 질, 시스템과 거버넌스, 공평한 접근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정부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몽골, 터키, 필리핀 등에서 K+12 학제로의 전환을 주도적으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교육 동형화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국가가 교육 과정을 업데이트하고, 교사의 질을 개선하고, 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더 많은 재정 자원을 동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K+12 학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과 인적 자원이 동반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이유가 존재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 세계 경쟁력에 관한 우려와 불평등 증가는 개발 의제를 주도한다. ADB는 K+12 학제에 대해 다양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K+12 학제로 개편되면, 국제 기준과 동일시 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더 많은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더 강한 국가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기술 숙달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가 놓인 상황과 자원의 차이로 인해 K+12 학제를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과 크게 다를 수 있다(Sarvi, Munger 와 Pillay, 2015).

마. 탈동형화 이론

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한 순응과 불응이 동시에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에는 각 시점에 조직을 둘러싼 특정한 맥락과 장기적 생존을 향한 조직구성원들의 상황 판단이 양자 중 하나 혹은 모두를 선택하는 조직의 행동을 결정한다(Oliver, 1991). Meyer와 Rowan(1977)은 조직 내부에서 기술적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 탈동형화(decoupling) 현상이 발생하며, 제도화된 공식구조의 채택과 실질적인 실행이라는 서로 다른 의사 결정이 제도적 탈동형화의 핵심 요소라고 지목하였다(Meyer와 Rowan, 1977). 채택과 실행이라는 구분은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인 조직의 이익 추구 행위의 무시, 미시적 수준의 행위 무시, 권력 현상의 무시와 환경에 대한 개인과 조직의 영향력 무시 등의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하연섭, 2016).

조직은 하나의 주어진 제도의 장 또는 활동 영역에서 모든 조직이 제도화 압력에 영향을 받더라도,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이 과정을 경험하거나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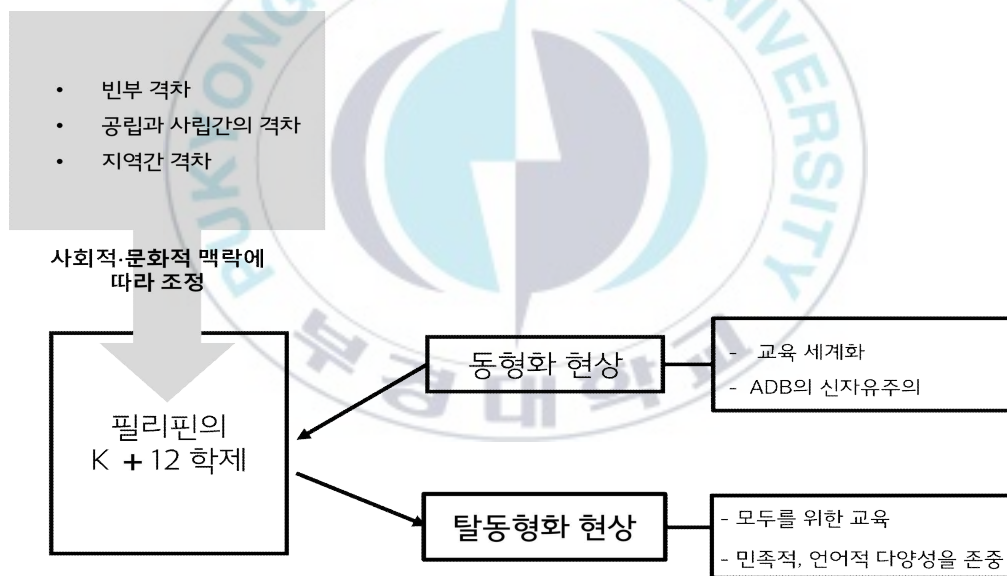
은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Scott, 2001). 이는 조직이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기술, 전략, 경영기법과 조직 운영 방식 등을 채택하는 의사 결정이 일상적 조직 활동과 통합되지 않는 ‘의례’와 ‘신화’에 불과한 경우 나타날 수 있다(Meyer와 Rowan, 1977). 탈동형화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동형화에 불응하여 합리적 효율성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다(Meyer 와 Rowan, 1977). 특히, 조직 외부에서 제도적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식구조의 채택은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 그 구조가 실제로 활용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탈동형화는 조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정장훈·조문식·장용석, 2011). 현실적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새로운 제도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수성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강경애, 2019).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조직의 기술적 관행을 개편하고 조정하는 일은 상당한 자원과 노력, 시간 등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Mayer 와 Rowan, 1977). 이를 해결하고자 조직은 외부적으로는 동형화에 순응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동형화에 불응하여 조직만의 독특성과 개별성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바. 분석틀

교육 시스템의 개선과 개혁은 종종 효과적이기 위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제도적 하향식 변화로 여겨진다. 시스템 및 전국적인 프로그램은 종종 학교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에 대한 더 쉬운 접근을 제공하며, 양질의 교육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Kremer, 2003).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학교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지만 성

적이나 시험 점수를 통해 측정되는 학생 성취도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Ganimian 와 Murnane, 2016). 비록 연구들이 물리적 및 인적 자원의 효과, 더 나은 학교 인프라, 그리고 개선된 교육학을 보여주지만(Glewe와 Muralidharan, 2016; Masino와 Nino-Zarazua, 2016), 그러한 개입은 종종 다른 개발도상국이 제시하는 사회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Chimombo, 2005). 또한 특정 학교 유형, 위치 및 인구에 대해 특정 할당과 개입을 더 긴급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국가 교육 시스템 내에서 현저한 차이가 식별된다(Trinidad, 2020).

< 그림 1. 이론적 분석틀 >



DiMaggio와 Powell(1983)의 제도적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재구성

본 분석틀은 DiMaggio와 Powell(1983)가 제시한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론 중 제도적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필리핀이 동형화 압력에 순응 또는 불응을 선택하여 나타나는 동형

화와 탈동형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리핀의 K+12 학제는 교육의 세계화와 ADB의 신자유주의에 의해 동형화 되었다. 하지만 필리핀만의 독특한 측면이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체제라는 것과 민족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다(Okabe, 2013). 이러한 독특한 측면들로 필리핀만의 12년 학제로 탄생하였다. 빈부격차, 공립과 사립간의 격차, 지역간 격차 등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K+12 학제로의 전환이 모두를 위한 교육에 기여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필리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화되었을 때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위와 같은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필리핀 통계청의 자료, 국제 교육 평가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학제를 개편한 이후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교실당 학생 수, 학생의 중퇴율, 교사 증·감수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제 개편 전·후의 성적을 대조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 평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질적연구 방법에서는 학제 개편 이후에 졸업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K+12 학제에 재학 중인 학생도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후 몇 명을 선정해 심층 면접(인터뷰)을 진행하였다. 학제 개편의 영향을 받은 학부모와 교사 또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필리핀의 고질적 문제로 언급되는 공립 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 격차를 실제로 파악하기 위하여 공립 학교의 교사, 사립학교의 교사, 공립 학교 학생의 학부모, 사립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분류하여 심층 면접(인터뷰)을 진행하였다. 2022년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현지 조사 기간에 설문지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K+12 학제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 궁극적으로 K+12가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탐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이후 학교의 유형 및 지역에 따라 교육의 여건 및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표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 >

설문조사	필리핀 전역 60명
학생 인터뷰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10명 선정 (재학생 : 공립 학교 3명, 사립학교 3명) (졸업생: 공립 학교 2명, 사립학교 2명)
학부모 인터뷰	마닐라, 학생 인터뷰 대상자의 학부모 5명 (공립 학교 2명, 사립학교 3명)
교사 인터뷰	마닐라의 공립 학교 교사 5명, 사립학교 교사 5명

1) 설문 조사 연구

가. 연구 대상

설문조사 대상은 필리핀의 학제 개편의 영향을 받은 01년생 이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필리핀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60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나. 표집 방법

설문지는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번역하여 구성하였다. 표집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로 필리핀 학생 60명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실시하였다.

다. 자료 분석

설문조사 분석은 구글 설문지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심층 면접 연구

가. 연구 참여자

학생 - 심층 면접 참여자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6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면접 요구에 동의하고, K+12 학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공립 학교 학생 3명과 사립학교 학생 3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K+12 학제 졸업생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공립 학교 졸업생 2명과 사립학교 졸업생 2명을 선정하였다.

학부모 - 심층 면접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재학생의 부모님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를 거절한 1명의 학부모를 제외하고, 자녀가 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2명과 자녀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3명을 선정하였다.

교사 -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 교사를 각각 5명씩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1) 필리핀 공교육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에도 공교육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 (2) 10년 학제 커리큘럼에서 현재 K+12 학제 커리큘럼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나. 분석 방법

마닐라에서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마닐라 전역의 공립 학교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선정하였다. 면접 조사는 마닐라에서의 대면 면접과 ZOO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 2022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인터뷰 날짜와 시간은 참석자들의 편의에 따라 개별 일정을 잡았다. 또한, 참가자들의 참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그들의 신원은 익명으로 유지됨을 명시했다. 면접 시간은 40~60분 소요되었다. 면접 조사는 영어로 진행되

었으며, 영어가 서툰 일부 학부모와의 면접 조사는 현지 통역을 통해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진행하였다.

대면 인터뷰는 녹음기를 사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비대면의 경우 인터뷰 내용은 ZOOM 녹화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과 화면을 녹화하였다. 녹화와 녹음에 대해서는 참가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 질문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반구조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K+12 학제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 궁극적으로 K+12가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탐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학부모에게는 K+12 학제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 궁극적으로 K+12가 자녀의 진로 및 직업 탐색과 연관이 있는지, 자녀들의 교육비에 관한 것을 물어보았다. 교사에게는 새로운 커리큘럼 정책으로 전환되던 당시 겪었던 어려움, 전환 전·후의 학생들의 성과, 전환 이후 수업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 등을 질문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필리핀의 학제 개편 이후 정부의 목표대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4.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필리핀의 K+12 학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은 필리핀의 교육 역사와 K+12 학제 변경의 배경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필리핀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교육 이슈와 K+12 학제의 변경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학제 변경 이후 필리핀 교육 환경의 이상과 현실적 한계에 관해 기술하였다. 다양한 국제 평가의 참여와 필리핀 교육의 현주소를 서술하였다. 학교 인프라와 교원의 확대를 노력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데 겪는 한계를 정리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했던 학생들의 졸업 이후 취업 연계와 관련된 한계에 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제4장은 교육 현장에서의 ‘모두를 위한 교육’의 딜레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 인프라가 확충과 필리핀 정부 제정의 문제와 제도변화 없는 체로의 교원 수급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형화 현상으로 인한 교육 격차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시작으로 K+12 학제가 시작되었지만, 다수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필리핀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표준화 정책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I. K+12 학제 변경의 배경

1. 필리핀의 교육 역사와 쟁점

1) 필리핀의 대중 교육 역사 및 쟁점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 필리핀은 크게 루손(Luzon), 비사야(Visayas), 민다나오(Mindanao) 제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300년 이상 스페인의 식민 지배받았으며, 이후 미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도 받게 된다. 필리핀의 문화는 스페인, 미국, 일본의 문화에 의해 덧입혀졌고, 각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필리핀의 공식 교육 제도 역시 스페인 식민 시기부터 일본 식민 시기까지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3번의 식민 지배 동안 필리핀의 교육 제도는 정부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필리핀 청년이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강조해왔다(Isidro, 1957).

필리핀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을 두려워했던 스페인 사람들은, 불충분하며, 억제되고, 통제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DepEd, website). 스페인의 식민지 계획의 연장선에 있었기에,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경건한 기능의 암기에 중점을 맞추어 공립 학교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스페인어와 라틴 알파벳을 가르치기 위해 스페인 선교사가 투입되었다.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지만, 스페인 교육 제도는 필리핀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전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은 모두 기독교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17세기 이전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성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였으므로 여자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았고, 1589년이 되어서야 설립되었다. 「1863년 교육 법령(Education Decree of 1863)」이 만들어진 후에야 일반 학교가 창설되었고, 필리핀 학생들은 3년간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Musa 와 Ziatdinov, 2012).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이 제정한 아동이 초등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1863년 12월 20일 제정)으로 인해 필리핀은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구조화된 교육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스페인 군대를 몰아낸 미국은 필리핀 내 스페인학교를 폐쇄하고 미국식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는 서구식과 동양식이 절충된 학교 교육 형태를 띤다. 이 시기에 미국은 필리핀의 민주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필리핀의 영어를 공식 언어로 선택했으며, 영어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사용되었다(Isidro, 1957). 학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군을 지정하고, 학교를 구분하였다(Llego, 2017). 필리핀위원회를 통해 미국은 고도 중앙화된 공립 학교 제도를 확립했다. 하지만 교원 부족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600명의 교사를 채용하였다(DepEd website). 공립 초등학교 입학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1948년 300만 명으로 증가해 일부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940년 교육법(Education Act of 1940)」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7학년 과정을 없애는 것이다.

일본은 이전에 필리핀을 점령한 서양 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의존하지 않고, 필리핀 독자적인 문화를 기르기를 원하였다. 일본은 필리핀을 동아시아 공동 번영권의 일부로 여겨, 양국 간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Dacumos, 2015). 일본 정부의 지지를 받아 DepED가 설립되었고, ‘일에 대한 열정과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교육 목표를 세우게 된다(Musa와 Ziatdinov, 2012). 필리핀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을 했으며, 물질주의와 직업관 등을 강조하였다(김동엽, 정법모, 2012). 교육 언어로는 영어 대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국민에게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87년 필리핀 헌법의 개혁은 기초 교육을 의무화했다. 공립 학교의 초등 교육은 무료로 의무화되었고, 공립 학교의 중등 교육도 의무화되지는 않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헌법 개혁은 필리핀 국민이 기초 교육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2) 학제 개편 전 교육 이슈

필리핀 교육 제도는 식민주의, 문화적 긴급성, 그리고 세계 경쟁력에 대한 요구와 같은 요소들의 산물이다. 스페인, 미국, 일본 세력에 의해 점령된 이 나라의 역사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교육 조직은 가톨릭 학교의 보급, 보편적인 기초 교육, 영어 교육,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반영한다.

필리핀은 학제 개편 전부터 교육 분야에 있어 수년간 재정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질 높은 교사의 부족과 교육적 자원 부족 사태가 필리핀의 저학력 구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Philippine Rights Organization, 2010). Philippine Rights Organization(2010)이 제시하는 교육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의 교육은 항상 예산 및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표2. 필리핀의 TIMSS 2003 결과와 TIMSS 2008 결과 비교 >

		과목	점수	국제 평균	순위	참여국
2003년	초등학교 4학년	수학	358	495	23	25
		과학	332	489	23	25
	중등학교 2학년	수학	378	466	34	38
		과학	377	473	43	46
2008년		고급수학	355	500	10	10

출처: TIMSS 2003, TIMSS 2008

학제 개편 전 필리핀은 2003년과 2008년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에 참여하였다. 다른 나라와의 수학 및 과학 성적을 비교했을 때,

필리핀은 국제 평균보다 저조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 순위에서 하위였다. 2003년 전체 참여국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및 과학은 23위(뒤에서 3등)를 차지했으며, 중등학교 2학년 수학 성적은 전체에서 34등(뒤에서 5등), 과학 성적은 43등(뒤에서 4등)을 차지했다. 2008년 고급수학의 경우 참여한 10개국 가운데 10등을 차지했다.

학제 개편 전 필리핀에서는 모국어인 타갈로그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수학, 과학 과목의 용어가 생소한 학생들에게 영어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 수학, 과학의 이해도가 차이 났다. 대체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경우 영어 수준이 공립 학교 학생들보다 높았기에 사립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공립 학교 성적보다 우수했다.

또한 필리핀의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했다. 필리핀에서 더 나은 품질의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마닐라에서는 거의 100%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이수하지만, 동부 비사야 제도와 민다나오 제도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이수율이 30% 이하에 불과하다. 필리핀 도시의 학생들은 최소한 초등학교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러하지 않았다. 도시 내에서도 공립 학교와 사립학교에서의 격차 역시 지속해서 지적받았다. 공립 학교에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과목 전담 교사가 없어 수학 교사가 과학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기도 한다. 빈곤 지역의 학교에는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이는 교사의 질이 의심되기도 한다. 2003년 필리핀 DepED에 따르면, 필리핀 공립 학교에는 교사의 수가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실, 책상과 의자, 교과서, 비디오 자료 등 교육 인프라가 크게 부족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한 가정에 아이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1,7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필리핀 공립 학교에 등록되어 있었고, 연간 인구 성장률 2.3%로 매년 약 17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난다. 필리핀의 학생은 너무 많고 교육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교육 배정 예산을 늘린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늘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립 학교에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만연하다.

높은 출생률은 필리핀의 낮은 교육 이수율과 중퇴자의 확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2년 필리핀은 초등학교 중퇴율이 6.38%, 중학교 중퇴율이 7.82%이다. 같은 해 유네스코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학교 밖 아동이 140만 명 있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국에 포함된 국가 중 ASEAN 국가는 필리핀이 유일하다.



2. K+12 학제 변경의 배경

필리핀의 기초 교육은 K+12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초등 교육 6년, 중등 교육 4년으로 총 10년의 기초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를 향한 다른 국가들의 집단적인 움직임과 함께 필리핀은 10년간의 기초 교육을 K+12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교육 개혁을 진행했다. 12년 학제는 미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캐나다, 중국, 한국, 터키와 같은 전 세계의 많은 교육 기관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국민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서 학제를 변경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아키노 3세는 기본 교육에 2년을 추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10년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에 우리와 같은 나라는 세 나라뿐입니다. 다른 두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다. 만약 우리가 학교에서 보낸 세월과 공부의 폭과 깊이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의 다른 나라들 사람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필리핀 사람들이 받을 교육의 견고한 기반입니다.”

- Aquino III 대통령 연설 中

DEP ED는 K+12 학제 구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DepED는 필리핀의 기초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필리핀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가장 지장을 주지 않으며, 정부와 각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고 저렴하며,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리핀의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하게 시키고자 했다.

둘째, 기초 교육의 질 저하가 필리핀 학생들의 낮은 성취도 점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문제로 여겼다. 기초 교육을 마친 많은 필리핀 졸업생들

이 기초 지식에 대한 충분히 숙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은 적절한 수업 시간과 과제를 하는 시간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 평가에 처음 참여한 필리핀은 국제적 수준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을 직시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기초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넷째, 기존의 기초 교육은 10년 동안 12년 동안 배울 내용을 가르쳤다. 축약해서 가르치는 수업과 혼잡한 커리큘럼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혼잡한 교육과정은 교육의 현주소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다섯째, 졸업생의 대부분은 노동력에 들어가기엔 너무 어리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고등 교육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생산적이거나 착취적인 노동 관행에 취약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의 학제는 기초 교육이 고등 교육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한다. 대부분 부모에게 기초 교육은 대학 교육을 위한 준비로 보인다.

여섯째, 기초 교육 프로그램의 짧은 기간은 또한 수백만 명의 해외 필리핀 노동자들,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과 유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든다. 필리핀인들은 10년제 학제가 불충분하다고 보는 다른 나라들에서 취업하거나 유학할 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존의 학제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필리핀 졸업생은 해외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받은 기간이 16년인 다른 나라에 비해 필리핀은 14년이므로,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전문대학(2년) 정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년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나라였다. 이는 ASEAN 국가와 교류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초 교육 프로그램이 필리핀 아이들의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필리핀 사람은 법적으로 18세가 되기 전에는 미성년자이다. 심리학자들과 교육자들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취업, 고등 교육 분야로의 진학에 대해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고 말한다.

위의 7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필리핀이 학제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이유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세계화와 발맞추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유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다. 필리핀의 기본적인 교육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해결책으로 필리핀 정부는 학제 변경을 선택했다. 세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이 있다.

1) 국제 경쟁력 강화

표면적으로는 이 개혁이 필리핀 고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구하는 결과는 K+12 학제가 궁극적으로 교육의 세계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12년 학제는 기초 교육에서 학습하기 가장 알맞은 기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표준 기간이다. 워싱턴 협정은 12년간의 기초 교육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긴다. 불로냐 협정은 유럽 국가에서 대학 입학 및 직업 실습을 위해 12년의 교육을 요구한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모든 수준의 교육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재정 자원을 동원하여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 필리핀의 교육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있었다. 학제 변경 이전에 필리핀에서는 10학년을 졸업하고 만 16세에 대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이는 외국으로 유학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했었다. 필리핀에서 기본 교육을 마친 경우일지라도 외국 대학에 12년간의 기초 교육 성적을 제출할 수 없었고, 2년의 교육을 추가로 수강해야만 외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인력 수출국의 입장이었고, 기존의 10년 학제를 졸업한 학생들이 외국에서 바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고 이 역시 학제 변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과 큰 연관이 있다.

필리핀이 직면한 또 다른 이슈는 ASEAN+2015이다. ASEAN 경제 공동체는 2015년에 탄생했다. 이는 ASEAN 10개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의 시작을 의미한다. 교육 서비스가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단일 시장과 생산 기반을 갖는다. 이 협정으로 노동, 투자, 자본의 흐름이 더 자유로워졌다. 이 협정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ASEAN 2015 협정이 체결된다면, 필리핀 사람들은 취업 비자(working visa) 없이 ASEAN 국가 어디에서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ASEAN 2015는 대학 졸업자이든 아니든 현재 필리핀인이 선호하는 도우미 일자리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모든 종류의 고용을 필리핀 지원자들에게 개방되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다른 ASEAN 국가로 더 쉽게 이동하고, 또 흡수되도록 국제 프레임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필리핀 사람들은 시대와 산업이 필요로 할 것에 대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할 수 있는 ASEAN 지역의 다른 나라 출신의 구직자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K+12 학제 시스템의 시행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리핀 졸업생과 노동자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했다.

2)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학제를 개편하기 전에 10년 학제 기간 동안 필리핀의 기초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했다. 이는 필리핀 학생들의 낮은 성취도 점수로 나타났는데, 기초 교육을 마친 많은 학생이 기초역량을 충분히 숙달하지 못했다. 2009~2010학년도 6학년 국가시험(NAT) 합격률은 69.21%에 불과했다. 이는 이미 2005~2006학년도 합격률보다 24% 향상된 수치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2009~2010학년도의 고등학교 NAT 합격률은 46.38%로 2008~2009학년도의 합격률인 47.40%보다 약간 감소했다. 또한 필리핀은 기본 교육을 10년 이수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높은 비율이 기초학력이 미달된 상태였다. 이는 기존 학

제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국내 평가 이외의 국제적 평가는 TIMSS 2003년 결과와 TIMSS 2008년 고급 평가가 유일하지만, 이 평가에서도 참담한 결과를 받았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필리핀은 수학과 과학에서 모두 25개 참가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8학년(중학교 2학년)의 경우 필리핀은 수학에서 38개국 중 34위, 과학에서 46개국 중 43위로 평가했다. 2008년 고등수학 부문에 과학고만 참여한 가운데서도 필리핀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내와 국외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기초역량 평가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교육 질 저하를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필리핀 정부는 K+12 학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다른 나라에서 12년을 가르치는 기초 교육을 단지 10년 만에 가르쳤기 때문에, 축약한 수업으로 교육 커리큘럼은 복잡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0년 학제를 12년 학제로 개편하여, 필리핀 학생들이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10년 학제 졸업자들은 직업 세계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정서적 성숙도도 낮았다. 학제 개편 전 실업자의 약 70.9%는 고등학교 졸업자였고, 실업자의 80%는 15~34세였다. 대학 진학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생산적이거나 착취적인 노동 관행에 취약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경제적 기회의 가용성은 기여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노동과 교육 시장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기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습을 계획하게 되었다.

3) 고등학교 내에서의 직업 교육 강화

DepED(2010)의 토론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K+12의 다음과 같은 이점이 강조된다. 졸업생들은 이제 해외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술자, 건축가, 의사 등과 같은 필리핀 졸업생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외국인 학교의 입학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다. 필리핀의 교육 시스템은 국제 기준에 필적할 것이다. K+12는 워싱턴 협정과 볼로냐 협정에 따라 필리핀 졸업생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상호 인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K+12 시스템이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넓혔다고 생각했다. 유학을 가거나 대학 진학을 요구하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학제를 변경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나이에 기초하여,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서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도 노동에 직면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언급한다(Lapus, 2008). 학생들이 교실에서 보내는 제한된 시간은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일을 훈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DepEd, 2010). 게다가, 고교 졸업장을 받고 실직 상태에 있는 필리핀인이 2백만 명이며, 그중 4분의 1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직 상태에 놓여있다(Torrevillas, 2017). 노동에 직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고등학교 내에서의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학습 스타일이나 다중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K+12 학제는 이러한 스타일이나 잠재력을 인정해줄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존 시스템과 달리 K+12에서는 각 학생이 SHS 과정을 마친 후 대학에 진학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업 트랙 이외의 트랙을 선택할 경우 대학 교육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생산적인 직업을 가지고 착취 노동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ASEAN 2015 협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ASEAN 각국에서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강화하였다.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당당히 취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특정 분야를 가르치고, 기술을 갖출 수 있게 기획하게 되었다.



3. K+12 학제 변경 내용

1) K+12 학제의 기본 교육 커리큘럼

필리핀은 오랜 시간 10년 학제를 유지했다. 기존 학제는 초등학교 과정 6년과 중등학교 과정 4년으로 10년이였다. 만 6세에 입학해 10학년을 졸업한 만 16세에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했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이유로, 필리핀 교육부(DepEd)는 2012년 필리핀 학제를 K+12로 개편했다.

< 표3. K+12 기본 교육 커리큘럼 >

유치원 (kindergarten)	* 1년 의무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1학년 (Grade 1)	2학년 (Grade 2)	3학년 (Grade 3)	4학년 (Grade 4)	5학년 (Grade 5)	6학년 (Grade 6)
중 학교 (Junior High School)	7학년 (Grade 7)	8학년 (Grade 8)	9학년 (Grade 9)	10학년 (Grade 10)		
고등학교 (Senior High School)	11학년 (Grade 11)			12 학년 (Grade 12)		
	학업 트랙		비학업 트랙			
	회계 및 비즈니스 관리, 인문사회과학, 공학 계열		농어업, 정보통신기술, 소비자학, 산업 예술		예술 (디자인) 체육	

출처: 필리핀 교육부DepEd, 필자 재구성

K+12 학제란, 유치원(kindergarten)부터 12학년(Grade 12)까지 교육을 일컫는다. 유치원 1년 과정에서 12년 교육과정까지 13년을 의미한다. 17세까지의 중등 교육의 연장은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일치하게 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2년 유치원 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치원 과정을 기본 교육 시스템으로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서 유치원 과정은 초등학교 입학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12년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과정 6년, 중등학교 과정 4년, 고등학교 과정 2년이다. 중등교육을 2년 연장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년 안에 가르쳐야 했던 내용이 이제는 6년 동안 가르치게 되었다. K+12 학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원활한 교육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한다.

K+12 학제 이후 신설된 2년의 고등학교(SHS) 과정에서는 컴퓨터, 보건 등의 기초적인 기술교육을 가르친다.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하면, 학업 트랙과 비학업 트랙을 선택하게 된다. 학업 트랙을 선택하면 회계 및 비즈니스 관리 (Accountancy and Business Management, 이하 ABM), 인문사회과학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이하 HUMSS),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이하 STEM) 중 하나를 다시 선택한다. 비학업 트랙에는 기술과 예술(DESIGN), 스포츠 (SPORTs) 트랙이 있다. 기술 트랙(TVL)에는 농어업(Agri-Fishery),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소비자학 (Home Economics), 산업 예술(Industrial Arts)이 있다.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면 취업과 대학 진학 중 하나를 고른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든 학생이 졸업 이후의 삶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졸업 이후 취업을 바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 이후 전공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전공 희망 분야의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졸업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것이며, 고등 교육을 받거나 취업할 때 전문성에 있어 중간 수준의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 자격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2) K+12 학제의 특징

K+12 학제는 크게 6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학습자와 관련된 커리큘럼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셋째, 통합적이고 원활한 학습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수업을 나선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넷째, 모국어 기반 다국어 교육이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고등학교 과정 2년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발전된 필리핀인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특징을 각 학교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치원

2012년 1월 20일, 공화국 법률 제10157호(유치원 교육을 기본 교육 제도로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충당하는 법률)가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2015년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을 달성하기 위한 MDGs에 따라, 모든 어린이에게 접근 가능한 의무 및 의무 유치원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선언한다. 제정자와 함께 그 법의 시행으로, 유치원 교육은 이제 무료이고 의무적이다. 유치원 교육은 기본 교육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이다. 유아기에는 뇌가 어른 크기의 60~70%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시기는 사람의 미래 생리적 발달과 성장에 중요하다. 유치원에서 학생들은 모국어로 게임, 노래, 춤을 통해 알파벳, 숫자, 모양 및 색상을 배운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 교육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유치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 초등 교육

중등 교육과 달리 초등 교육은 K+12 학제에 따라 연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의 매체는 크게 바뀌었다. 새롭게 변경된 학제에서는 초등학교 1~3학년을 위한 모국어 기반 다국어 교육이 시행된다. 이전의 교육과정은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했지만, 이중언어는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언급했다. 이

는 필리핀의 맥락에서 항상 잘 작동하지는 않았다. 필리핀은 다언어·다민족 국가로 타갈로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따라서 타갈로그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수업을 들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Ricardo 2008). 지방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국어 이외에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제2, 제3 언어로 배워야 했다.

< 표4. 각 지역의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12개의 주요 언어 (1~3학년) >

Tagalog (타갈로그어)	Cebuano (세부어)	Meranao (마라나오어)	Kapampangan (팜팡가어)
Hiligaynon (힐리가이논어)	Chabacano (차바카노어)	Pangasinense (팡가시난어)	Waray (와라이어)
Iloko (일로카노어)	Bahasa-sug (타우수그어)	Bikol (비콜어)	Maguindanaoan (마긴다나오어)

출처: SEAMEO INNOTECH (2012) p. 22. 재구성

K+12 학제는 1~3학년의 교육 매체로 사용되는 지역 언어의 수를 확장한다. 타갈로그어와 영어와 함께, 11개의 다른 언어들이 사용될 것이다 [표 4]. 이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교실 수업을 더 잘 따를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4학년 수업 시간부터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사용하게 된다.

다. 중등 교육

K+12 학제에 따른 필리핀 교육 시스템의 큰 변화는 중등 교육에 있다. 학제 개편 전 필리핀은 기초 교육의 접근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접근성은 대체로 달성되었지만 중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교육 개발 연구의 맥락에서 중등 교육은 초등 및 고등 교육에 비해 가치가 낮은 경향이 있다(Lewin and Caillods 2001). 초등 교육은 보편적 교육에 대한 욕구와 빈곤 해소를 위해 강조되어 왔지만, 고등 교육은 산업 발전과

지식경제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등 교육은 그 역할과 그 역할 사이에 있었다. K+12 학제에 따라 중등 교육의 가치와 역할이 재조명되고 재평가되어 중대한 변화와 개혁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구조, 교육과정 및 평가에 있다.

< 표5. 중등 교육의 주요 변화: 구조, 커리큘럼 및 평가 >

	유형	변경 내용
(1)	구조	- 교육의 연장 - 2년을 더해져, 총 6년 과정이 됨 -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뉨
(2)	커리큘럼	설계에 의한 이해(UbD), 원하는 결과 식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및 계획 지침은 학습이 이전에 학습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인 나선형 접근법 으로 대체됨
(3)	평가	국가 성취도 시험은 10학년과 12학년이 끝날 때 시험으로 대체될 것이다.

출처: SEAMEO INNOTECH (2012) pp. 26-27. 재구성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6년으로 연장되고 중·고등학교로 나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받게 된다. 이 평가에는 적성 검사, 직업 평가 시험, 고등학교를 위한 직업 관심 목록 등이 포함된다. 관심 직업 목록 선택은 학생들이 전문화 또는 트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된다. 학생들은 이 평가에 맞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전공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각 트랙에 맞춰 11학년과 12학년에 수강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트랙의 과목을 배우고 실제 경험하게 된다. 기술 트랙을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정규 학년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0학년을 마친 후 학생은 해당 능력 증명서, 자격증(COC) 또는 국가 증명서 레벨 I(NC I)를 취득할 수 있다.

12학년 과정의 기술-직업-생계 트랙을 마친 학생은 기술교육 및 기술 개발 기관(TESDA)의 역량 기반 평가를 받게 되고, 통과하였을 때 국가 자격증 레벨 II(NC II)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자격증들은 해당 분야에서 고용 가능성과 연관된다. 또한 기술 및 직업 과정은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연계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 직장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졸업 후에도 그 회사에 고용될 가능성도 있다.

새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 평가 변화와 관련해 기존에 학습한 지식에 대한 지식의 구축을 강조하는 나선형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수업은 나선형으로 진행되어 가장 단순한 개념부터 더 복잡한 개념까지 학습하게 된다. 유치원 과정부터 12학년까지 연결되어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과목들은 나선형으로 연결되어있다. 어느 정도의 레벨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지식과 기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 하에서, 평가는 10학년 말과 12학년 말의 시험에 기초할 것이다. 이것은 2학년 말에 중등학교 학생들이 치렀던 국가 평가 시험을 대체할 것이다.

혼잡 해소라는 키워드는 중등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시간의 할당으로 구체화한다. 표 6은 K+12 학제의 시행 전·후에 주별로 할당된 과목의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새로운 학제에 따라 영어, 필리핀어, 수학의 핵심 과목은 물론 마카바얀(Makabayan²⁾)에 해당하던 일부 과목에 배정되는 시간이 줄었다. 전반적으로 주당 시간 배분을 줄이면서 교육과정의 복잡성을 해소했다. 이것은 중등 교육에 2년을 더 추가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게다가, 고등학교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당 시간 할당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업에 할당된 시간의 총합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배우는 양은 증가할 것이고, 매주 학생들은 핵심 과목과 일부 다른 수업을 듣는 시간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혼잡하지 않은 교

2) Makabayan은 애국심을 의미한다. 고등학교에서의 마카바얀 교육은 필리핀 중등 교육의 특징이며 필리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결속과 획일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육과정의 핵심 특징이다.

< 표6. 중등 교육의 학습 영역 및 시간 할당 >

학습 영역	2002년 교육기본과정 (주당 시간)	K+12 학제 (주당 시간)
영어 (English)	5	4
국어 (Filipino)	4	4
수학 (Mathematics)	5	4
과학 (Science)	6	4
사회 (Araling Panlipunan)	4	3
도덕 (Edukasyon sa Pagpapakatao ³⁾)	2-3	2
음악, 예술, 체육, 건강 (Music, Arts, 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 MAPEH	마카바얀 (Makabayan)	4
기술과 생활교육 (Technology and Livelihood Education)	4	4

출처: SEAMEO INNOTECH (2012) pp. 33. 재구성

K+12 학제에 따라 학생들이 매주 더 천천히,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예전의 혼잡한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복습하고 흡수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학습이 더 충분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3) Edukasyon sa Pagpapakatao는 "가치 교육"을 의미한다. Pagpapakatao는 그 자체로 "인성"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연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SEAMEO INNOTECH 2012: 40). 이를 도덕이라고 칭하였다.

3) K+12 학제로의 전환

필리핀은 ADB의 투자를 받으면서 2012년 학제 개편을 시작했고, 학제 개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그림2. K+12 학제의 구현 및 전환 >

					12학년
				11학년	6학년
			10학년	5학년	
		9학년	4학년		
	8학년	3학년			
7학년	2학년				
1학년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출처: 필리핀 교육부DepED, 필자 재구성

의무화된 유치원 교육은 2011~2012학년도에 시작되었다. K+12 학제의 시행은 2012~2013년 학년도부터 진행되었다. 2012~2013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처음 이수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강화된 중등 교육 프로그램 과정인 중학교 1학년(7학년) 과정을 구현했다. 2013~2014학년도에는 2학년과 8학년이 시작되었고, 연도별로 3학년&9학년, 4학년&10학년, 5학년&11학년, 6학년&12학년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학제 K+12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첫 번째 6학년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12학년이 2018년에 졸업했다.

Ⅲ. 학제 변경 이후 교육 환경의 동형화

학제 변경 이후 필리핀의 교육 환경은 교육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형식적으로 동형화되고 있다. 첫째, 국제 평가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필리핀은 여러 가지 국제 평가에 참여하며 국제 경쟁력을 검증받으려 한다. 둘째, 국내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교육 예산을 늘리고 교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의 취업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취업 교육을 도입했다. 그리고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를 하려는 등 취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제3장에서는 필리핀의 K+12 학제로의 변경 이후 동형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와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1. 국제 평가의 참여와 교육의 현주소

K+12 학제로 개편한 필리핀은 학생들의 성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 평가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이 참여하기 시작한 국제 평가에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동남아시아 기초 학습평가(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 SEA-PLM)이 있다. PISA는 2000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평가이다. PISA는 15세 아동의 읽기, 수학, 과학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2018년에 처음으로 PISA에 합류한 필리핀은 필리핀 학생들이 받고 있는 기초 교육의 질을 세계화하는 단계로 작용했다. PISA 2021 평가는 코로나 상황으로 1년 연기

되어 2022년 평가가 진행되었고, 필리핀 역시 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TIMSS는 1995년부터 4년 주기로 실시되며, 수학과 과학 및 읽기 분야에서 4학년과 8학년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TIMSS Advanced는 중등학교 마지막 해에 학생들을 위한 고급 수학 및 물리학 성취도를 연구한다. TIMSS Advanced는 1995년, 2008년, 2015년에 실시되었다. 필리핀은 TIMSS 2003년과 TIMSS Advanced 2008년 참여 이후 TIMSS 2019 평가에 다시 합류했다.

SEA-PLM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5학년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한 대규모 학생 학습 평가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필리핀은 최초의 평가에 참여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평가는 기초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12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평가 결과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성과를 조사하여 적절하고 대응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혁이 도입되어 교수 및 학습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평가는 모두 비슷한 시기인 2018년과 2019년에 시행되었고, K+12 학제의 졸업생이 나온 2018년 이후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국제 평가에서 필리핀의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참여와 교육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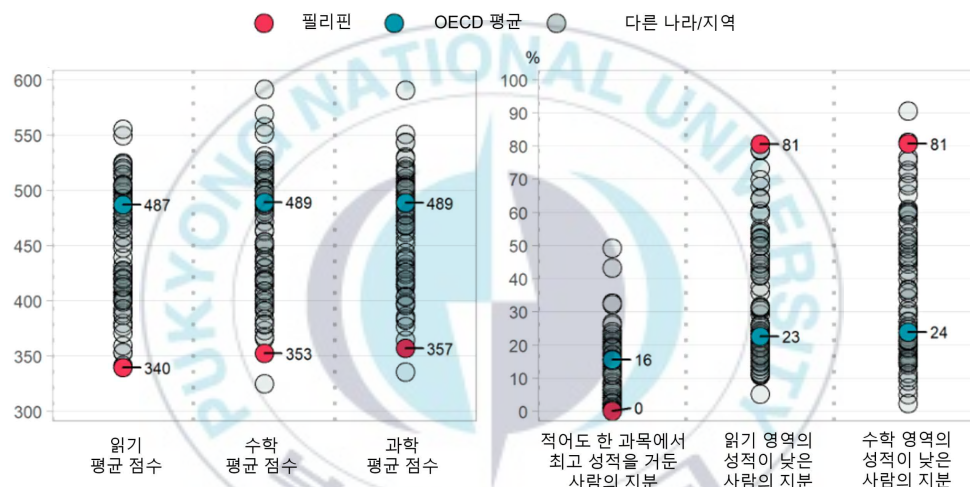
PISA는 15세 아동의 읽기, 수학, 과학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한다(PISA). 2018년에 처음으로 PISA에 합류한 필리핀은 필리핀 학생들이 받고 있는 기초 교육의 질을 세계화하는 단계로 작용했다. 특히, PISA는 의무교육이 거의 끝나가는 학생들을 평가하며, 필리핀의 PISA 참여는 필리핀 교육부(DepEd)에게 향상된 교육과정의 효과와 전달 시스템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 도구를 제공한다. 필리핀 교육부(DepEd)는 PISA 2018 결과를 활용하여 필리핀 학생들이 그들이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DepEd 명령 제31호(2012-2013학년도 K+12 학제 기초교육과정 시행학년도

1-10학년의 시행방침)는 해당 학습분야에 대해 교육 언어가 영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은 응시자들이 언어적인 문제를 겪지 않고 PISA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 충분한 영어 이해 수준에 도달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영역에서의 전체적인 결과이다. 필리핀 학생들의 평균과 OECD 학생들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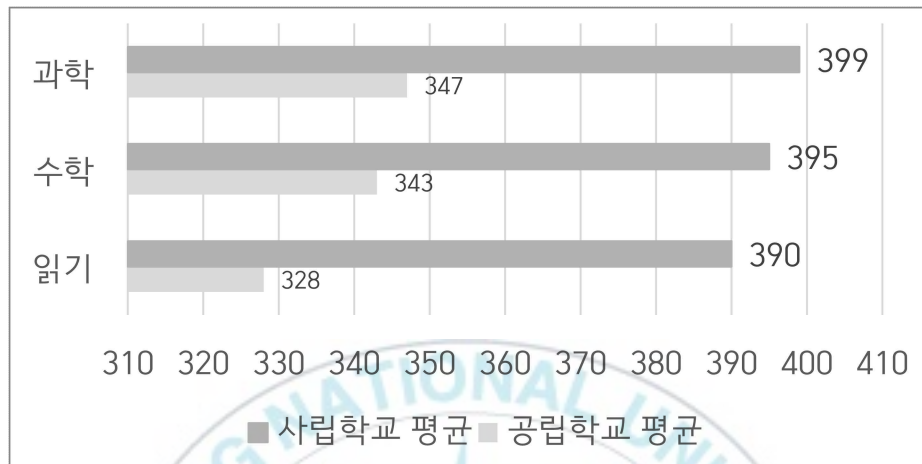
<그림3. PISA 2018 읽기, 수학, 과학의 성적 정보>



출처: OECD, PISA 2018 데이터, Table 1.1과 10.1

읽기 성적에서 평균적으로 340점을 받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487점보다 현저히 낮다. 필리핀 학생들은 수학 영역에서는 평균 353점을 받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489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필리핀 학생들은 과학 영역에서는 평균 357점을 받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489점보다 현저히 낮았다. 즉,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이 OECD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지만, 필리핀이 읽기 부문에서 최하위, 수학에서 2번째로 최하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시험 점수는 우려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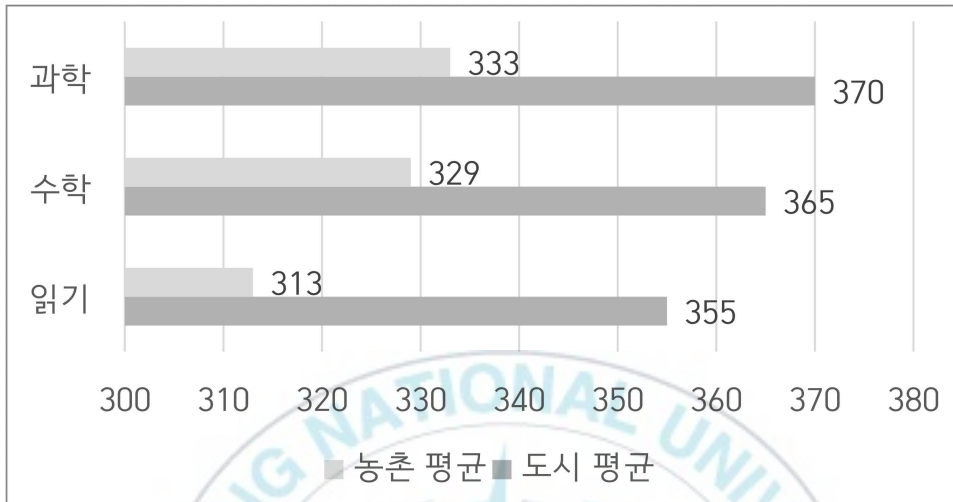
<그림4. 필리핀 공립학교 학생의 평균과 사립학교 학생의 평균 비교>



출처: PISA 2018 데이터 재가공

또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 역시 주목해야한다. 사립학교의 필리핀 학생들의 읽기 영역에서의 평균 390점으로, 평균 328점인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현저히 높았다. 사립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학 점수는 395점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의 평균 점수 343점보다 현저히 높았다. 사립학교의 학생들의 과학 평균 399점은 평균 347점이었던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현저히 높았다. 세 과목 모두 사립학교의 평균이 공립학교의 평균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5. 필리핀 도시와 농촌의 학생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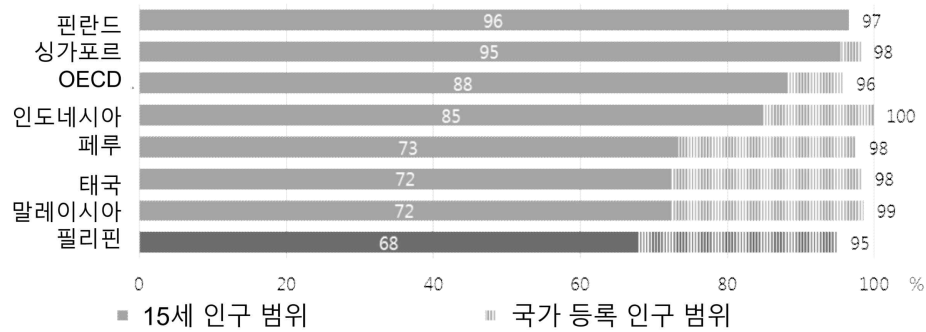


출처: PISA 2018 데이터 재가공

또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 지역 간의 격차에도 주목해야 한다. 도시 지역 거주 학생들의 평균 읽기 능력 점수(355점)는 농촌 지역 거주 학생들의 평균 점수(313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도시 지역 학생들의 평균 수학 능력 점수(365점)가 농촌지역 학생(32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도시지역 학생들의 과학 평균 성적은 370점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의 평균 성적(333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이하게도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성별에 따른 격차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 학생들의 성적이 약간 높았다. 필리핀에서는 여학생들이 전체 읽기 능력에서 남학생들보다 27점 차이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 남학생(84.82%)과 여학생(76.90%)의 대다수는 전체 읽기 문해력에서 최소 지식을 익히지 못했다. 또한 여학생들은 과학 리터러시 평균 점수 359점을 받아 남학생 평균점수(355점)와 다소 높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심지어는 여학생의 평균 수리능력 점수(358점)가 남학생(346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림6. 필리핀 및 비교 대상국의 15세 인구 대상>



출처: OECD, PISA 2018 데이터 재가공

또한 PISA 2018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PISA 표본으로 대표되는 15세 인구가 OECD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고,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는 PISA 평가에 참여한 필리핀 15세 인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초등학생부터 필리핀의 중퇴율이 높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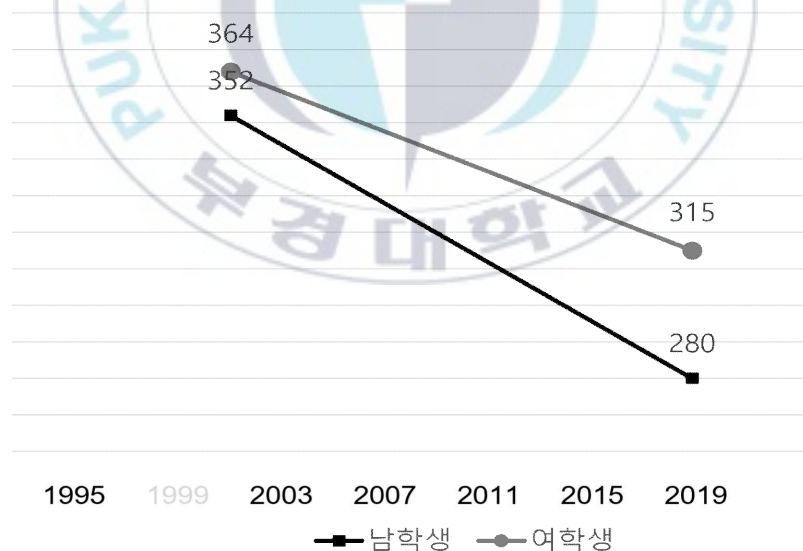
필리핀 교육부(DeepEd)가 2018년에 처음으로 PISA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은 필리핀 기초 교육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한 한 걸음이다. 교육의 변화와 함께, 세계 표준도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는 개선을 위한 격차와 영역에 대한 완전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DeepEd)는 PISA에 가입함으로써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 평가를 활용하여 자체 국가 평가를 보완한다. 학습자들은 국가 성취도 시험에서 역사적으로 낮은 성적을 거두었다. 교육부(DeepEd)는 이것이 PISA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고, 기초 교육의 질적 기준을 세계화하는 데 있어 엄청난 과제에 집중했다.

2) TIMSS 재참여와 성적 하락의 결과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는 국제 교육평가위원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가 실시하는 프로젝트다. 국제 교육평가 위원회는 학생의 교육 성취에 대한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기관이다(TIMSS 홈페이지). TIMSS는 다양한 국가들이 수학과 과학 분야의 국제 교육 성취 수준에 초점에 도달하는지 알아보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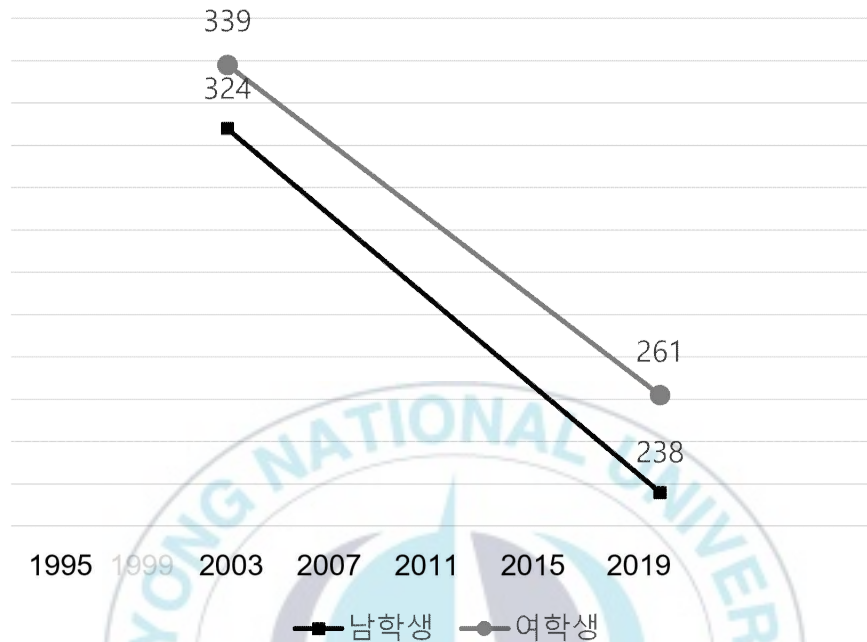
아래 표는 필리핀이 최초로 평가에 참여한 2003년과 필리핀이 가장 최근에 참여한 2019년 평가를 비교하여 학제 개편 전·후 필리핀 학생들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7. TIMSS 2003 및 TIMSS 2019 수학 성적 비교>



출처: TIMSS 2003 데이터 및 TIMSS 2019 데이터 재가공

< 그림8. TIMSS 2003 및 TIMSS 2019 과학 성적 비교>



출처: TIMSS 2003 데이터 및 TIMSS 2019 데이터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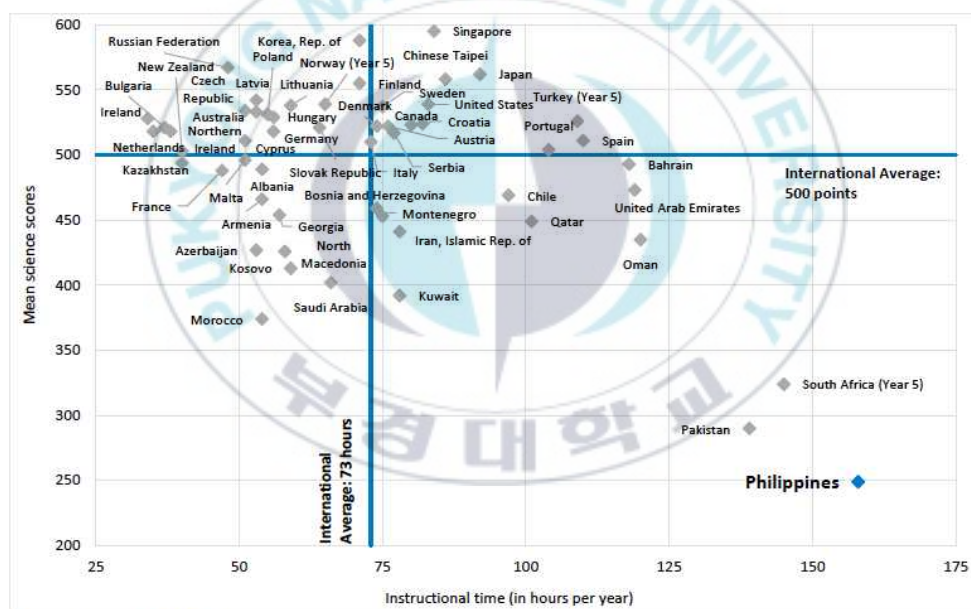
2003년 필리핀이 받은 성적은 하위였다. 초등 4학년은 수학 및 과학에서 뒤에서 3등, 중등 2학년(8학년)은 과학에서는 뒤에서 4등, 수학에서는 5등을 기록했다. 학제 개편 이후에 재참여한 필리핀의 성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성적이 하락하여 참여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학제 개편 전과 후의 필리핀 학생들은 기초 수준인 400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의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너무 낮아 점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학생 비율이 15%초과 25% 이하로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수학 성취수준에 따른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수준(40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19%, 보통 수준(475점) 이상은 6%, 우수 수준(550점) 이상은 1%였다. 과학 성취도는 너무 낮아 점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학생 비율이 25%를 초과하여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2003

년 평가의 수학 성적에서는 수월수준(625점) 이상이 1%, 우수 수준(550점) 이상이 5%, 보통 수준(475점) 이상이 15%, 기초 수준(400점) 이상이 34% 있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과학 성취수준에 따른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수준(40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13%, 보통 수준(475점) 이상은 5%, 우수 수준(550점) 이상은 1%였다. 2003년 평가의 과학 성적에서는 수월수준(625점) 이상이 2%, 우수 수준(550점) 이상이 6%, 보통 수준(475점) 이상이 19%, 기초 수준(400점) 이상이 34% 있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 그림9. 과학 수업 시간과 과학 성적의 관계 >



Source: TIMSS 2019 database.

출처: Timss 2019 데이터 자료

하지만 필리핀은 4학년 학생들을 1년에 1,225시간을 가르쳤고,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다. 특히 과학은 1년에 158시간을 가르쳤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TIMSS 2019의 과학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TIMSS 2019에 따르면 4학년 학생 중 81%가 간단한

수학 연산을 수행하거나 간단한 단어 문제를 풀거나 막대 그래프와 표를 읽을 수 없다. 무려 87%가 기초 과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필리핀의 교실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국제 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TIMSS 2019에 따르면 4학년 학생의 3분의 1은 매일 또는 거의 매일 피곤함을 느끼며 학교에 도착한다고 밝혔고, 29%는 자신이 피곤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은 항상 또는 거의 항상 배가 고팠다. 집에 있는 자원도 중요할 수 있다. 또한 TIMSS 2019에 따르면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 집에는 책이 부족하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 즉, 교육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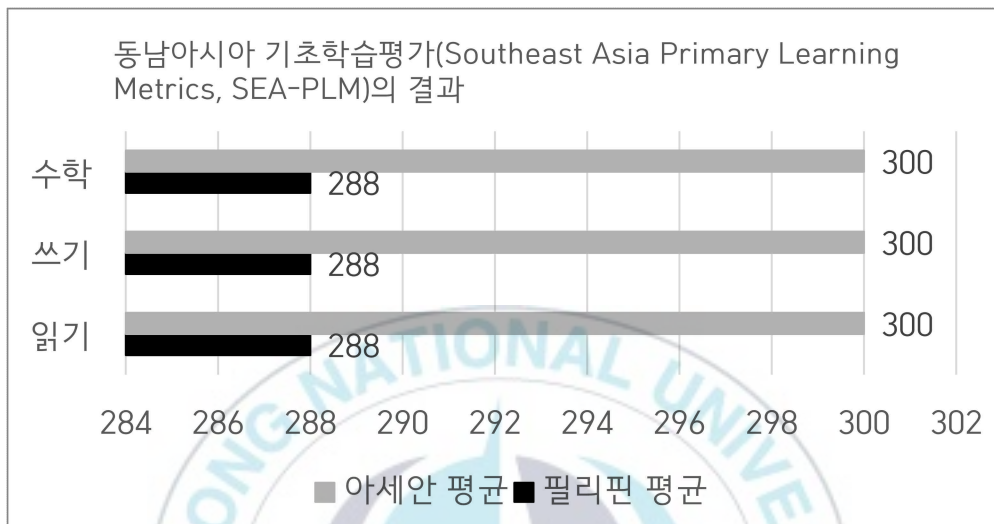
3) 동남아시아 기초학습평가의 참여와 암담한 결과

동남아시아 기초학습평가(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 SEA-PLM)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별 교육 과정 분석을 거쳐 개발되었다. 2019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4년 주기로 2023년에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SEA-PLM은 주로 읽기, 쓰기, 수학 및 세계 시민권(GC) 영역에서 학습 결과를 측정한다. SEA-PLM은 맥락 분석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장을 위한 배경 질문서도 포함했다. 더 중요한 것은, SEA-PLM이 저학년이 끝나고 초등교육이 끝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SDG) 4.1.1에 제시된 최소 숙련도 지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필리핀 교육부(DepEd)는 필리핀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 교육에서 학습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가 교육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은 2018-2019학년도 SEA-PLM의 첫 번째 평가에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참가했다. 필리핀은 4학년부터 영어를 공식 언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언어로 영어가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다. 하지만, 필리핀 5학년 학생의 절대다수(93%)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

에서 교육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그림10. 동남아시아 기초학습평가 필리핀 결과 >



출처: TIMSS 2003 데이터 및 TIMSS 20019 데이터 재가공

동남아시아 기초학습평가(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 SEA-PLM)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읽기 능력 평가에서 필리핀 5학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88점으로, 참가국 6개국의 평균인 300점 이하의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필리핀 5학년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평가 평균 점수는 288점으로, ASEAN 지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필리핀 5학년 학생의 거의 절반(46%)이 글쓰기 능력에서 가장 낮은 숙련도에 속했다. 필리핀 5학년 학생들 중 6%만이 5학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글쓰기 능력을 보여주었다. 수학 평가에서는 필리핀 5학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 288점을 받았고, 이는 6개 참가국의 평균점수(300점)보다 낮게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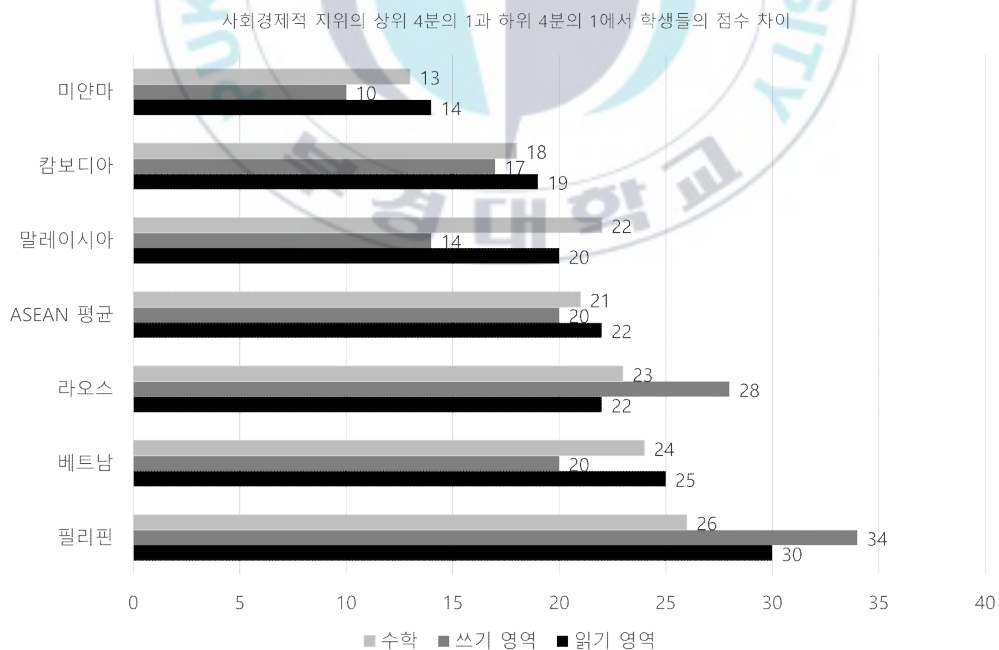
5학년 필리핀 여자아이들은 3개 영역 모두에서 남자아이들을 크게 앞질렀다. 가장 큰 차이는 쓰기 능력에서 찾을 수 있는 반면, 가장 작은 차이는 수학적 능력에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격차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기초학습평가(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 SEA-PLM)에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격차가 언급되었다. 필리핀 5학년 학생들 중 공립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10명 중 9명이었다. 전반적으로, 사립학교의 필리핀 5학년 학생들은 세 영역 모두에서 공립학교의 학생들을 크게 앞질렀다. 둘 사이의 격차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에서 더 두드러졌다.

또한 지역간의 격차 역시 주요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필리핀 5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3개 영역에 걸쳐 조사한 결과, 행정 구역별로 학생들의 숙련도 분포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등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5학년 학생이 많은 지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세 영역 모두에서 시골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학교 위치가 학생들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림11. ASEAN의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 사이의 점수 차이 >



출처: SEA-PLM 2019 데이터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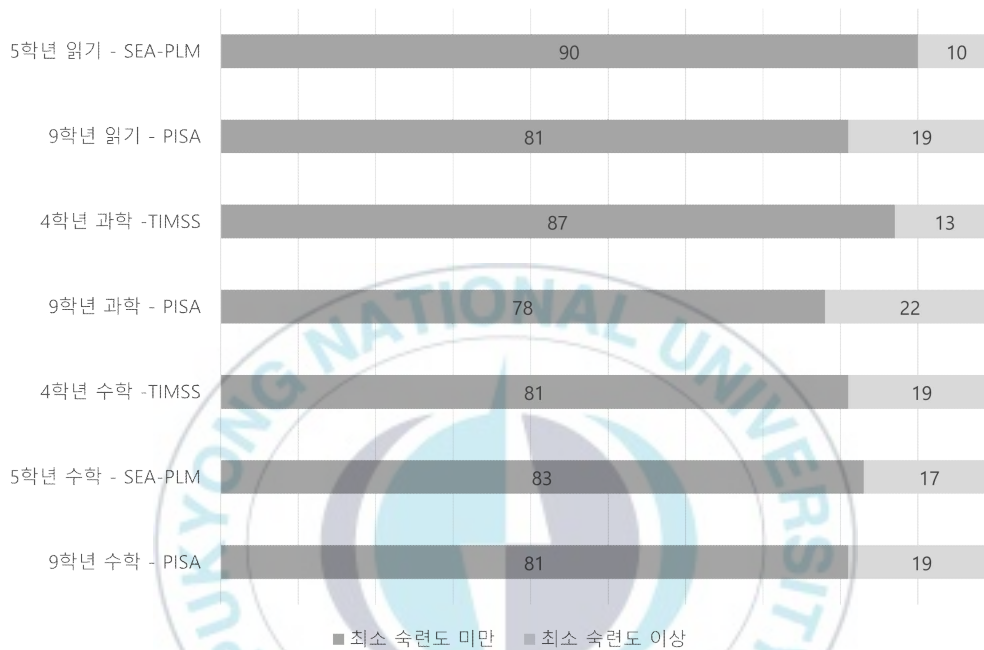
ASEAN의 부유한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 사이에 격차는 ASEAN 6개국 가운데 필리핀이 가장 컸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위 4분의 1과 하위 4분의 1에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읽기 영역에서는 30, 쓰기 영역에서는 34, 수학 영역에서는 26이었다. 필리핀보다 GDP가 낮은 캄보디아, 라오스보다 높은 수치였다. 학습 자료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은 같은 학습 자료에 덜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평균적으로 지역 내 가용 자원이 적은 학교는 가용 자원이 많은 학교보다 세 영역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낮았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용 자원이 적은 학교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필리핀 5학년 학생들의 대다수는 영어(73.8%)와 수학(71.8%) 학습 영역에서 학생 한 명당 한 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필리핀 5학년 학생 100명 중 8명 정도가 2명 이상과 읽기·수학 교과서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자신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세 영역에서 훨씬 더 높은 평균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은 SEA-PLM 2019 평균 참가국보다 학생들의 수면 부족, 수업 중 배고픔, 학생들의 결석, 수업 방해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학생의 태도, 교사의 실천, 학부모의 참여는 인지발달에 중요한 것으로 밝혀진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필리핀의 5학년 학습자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은 학습 전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세 가지 평가에 드러난 필리핀의 교육 한계

< 그림12. 세 가지 시험 결과 - 최소한의 숙련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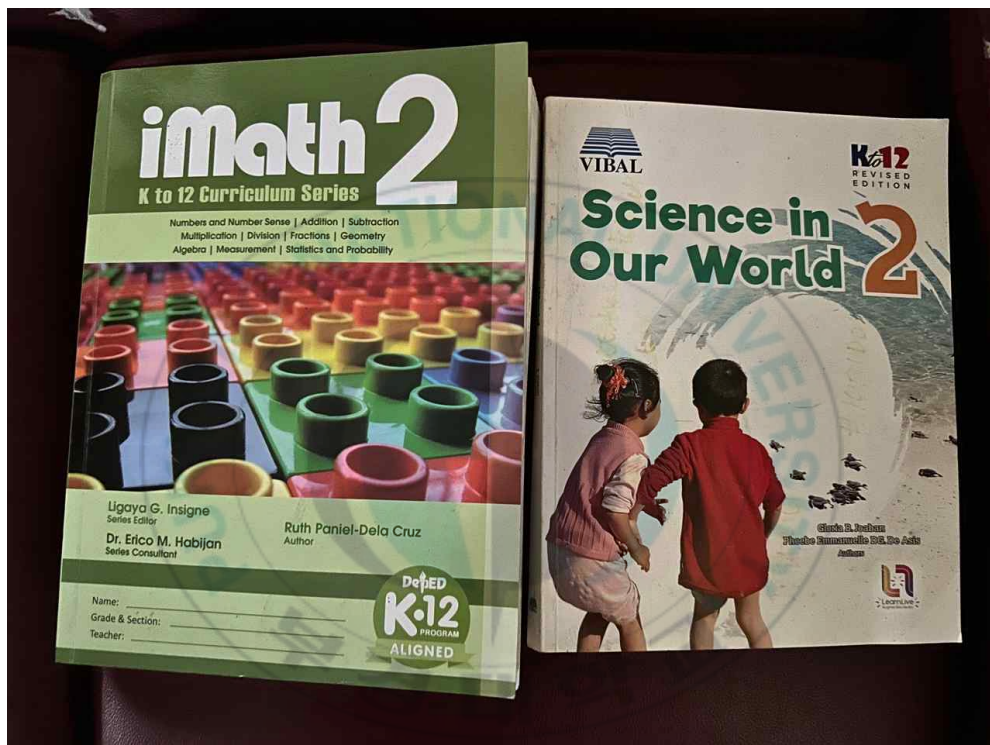
출처; PISA2018, TIMSS2019, SEA-PLM 2019 데이터 재가공

필리핀은 3가지 평가에서 마지막 또는 마지막 앞에 순위가 매겨졌다. PISA 2018에 참가한 79개 국가 중 필리핀은 읽기에서 꼴찌, 과학과 수학에서 2위를 차지했다. TIMSS 2019에서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003년에 마지막으로 참가한 이후 순위가 하락했다. SEA-PLM 2019에서는 ASEAN 6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 세 가지 평가 모두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았다.

세 가지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여자아이들의 성적이 남자아이들보다 낮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아이들의 성적이 남자아이들의 성적보다 우수했다. 하지만, 지역간의 격차, 학교 유형별 격차가

켰다. 도시의 학교에서 지방에 위치한 학교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자원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 그림13. 공립학교 2학년 수학, 과학 교과서 표지 >



출처: 현지조사 기간에 직접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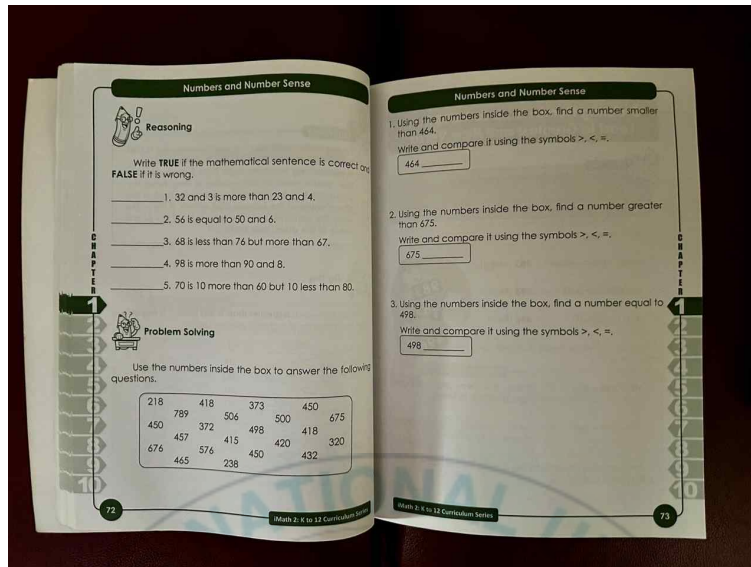
K+12 학제로의 전환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모국어와 타갈로그어로 학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 과목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더욱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수학과 과목학은 저학년일지라도 영어로 쓰여진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학과 과학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배우는 것에서 필리핀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모국어로 수학을 배우는 것이 영어로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혀진 연구 결과들이 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모국어를 교육 매체로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Charanchi(2011)의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수학과 과학에서 모국어를 교육 매체로 사용하면 학습자의 이해력이 향상되고 학습 속도가 빠르고 숙달 지수가 높다. 제2외국어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적 창의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낙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한 사람이 숙달하지 않은 언어에서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학과 과학을 영어로 작성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영어로 수업하게 되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도 여전히 수학과 과학은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 결과는 앞의 3가지 평가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필리핀이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모국어로 수업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모국어 기반 접근법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얻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 도약대로서 그리고 수학적 연산이나 과정이 왜 작용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 그림14.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공립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 >



출처: 현지조사 기간에 직접 촬영
< 그림15.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공립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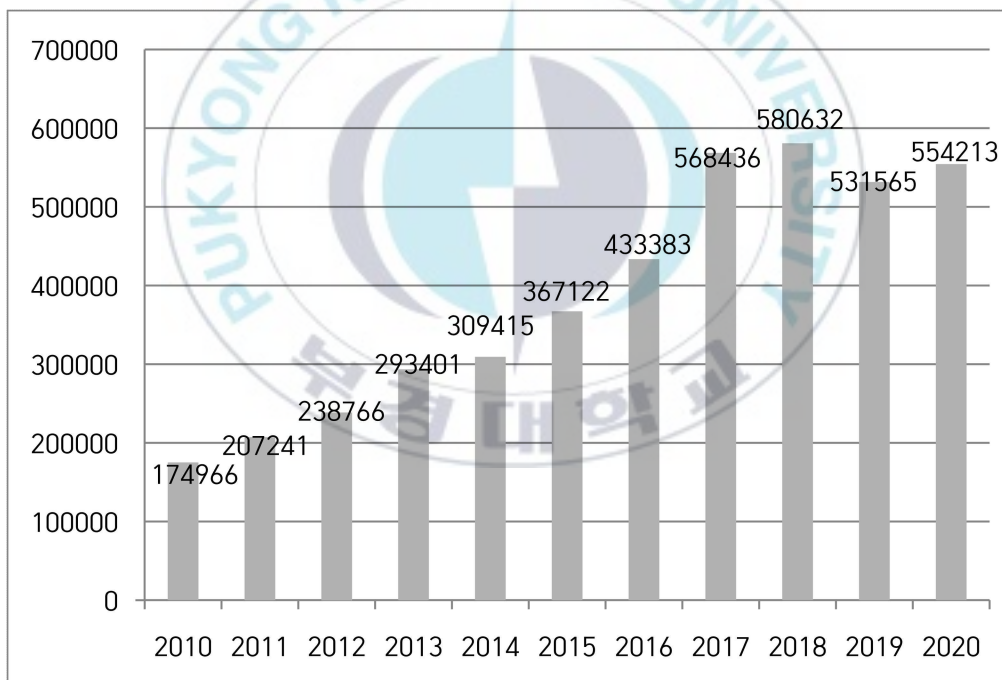


출처: 현지조사 기간에 직접 촬영

2. 학교 인프라와 교원의 확대 추진

필리핀은 학제 개편 전부터 교실 부족, 열악한 교육 인프라 등이 문제가 되었다. 국제 평가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국내의 고질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동형화되기 위하여 학교 인프라를 확대하고 교원을 확대했다.

<그림16. 2010~2020년도 교육 부문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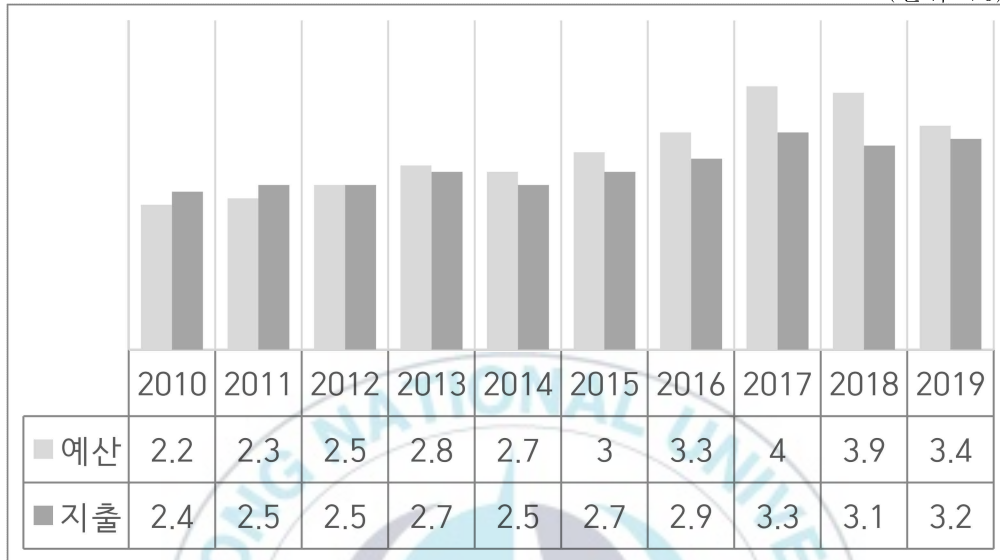


출처: WB 2021, DBM. 재구성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다른 부서의 예산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K+12를 담당하는 교육부(DepEd)가 받은 할당량은 같은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였고,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그림17. 필리핀 GDP 대비 교육 예산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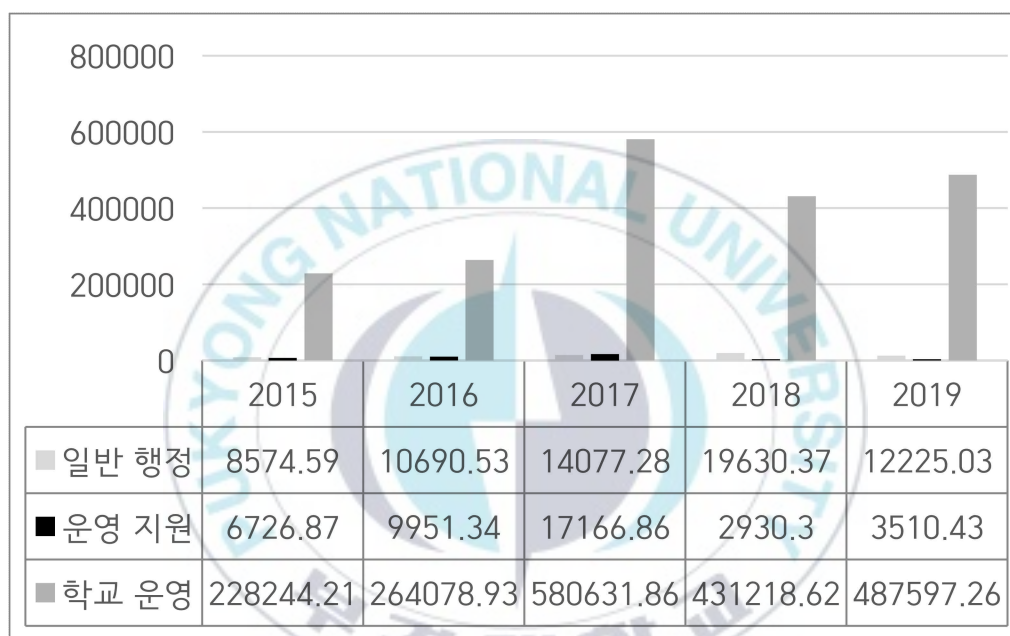
출처: WB 2021, DBM. 재구성

위의 그래프는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필리핀 GDP 대비 교육 예산과 실제 사용한 지출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UN의 SDGs의 권고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GDP(국내 총생산)의 최소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에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2019년 GDP의 3.2%를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UN이 권고하는 4%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GDP 대비 교육 예산의 비중과 총 정부 지출은 임기 중 소폭 증가하다가 다식 감소했다. 예산 계획안이 4%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예산 계획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교육 분야에 쓰이는 돈은 3% 남짓이다.

필리핀 교육부(DepEd)는 일반 행정, 운영지원, 학교 운영에 교육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교육 예산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 그림18. 필리핀 교육부(DepEd)의 프로그램별 교육 예산 사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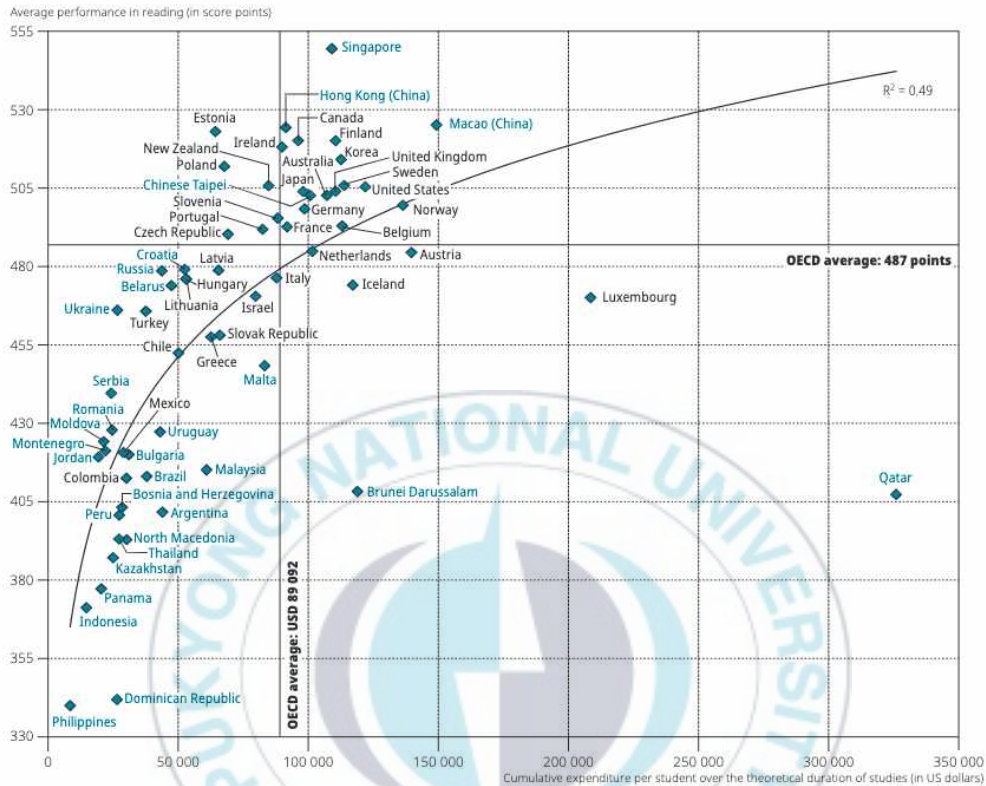
(단위: 백만 페소)



출처: 필리핀 교육부(DepEd) 2020 데이터 자료 재구성

2015년과 2019년의 교육비 사용을 비교해보면, 일반 행정은 43% 증가했고, 운영 지원은 48% 감소했으며, 학교 운영은 114% 증가했다.

< 그림 19. 학생 1인당 누적 지출과 시험 점수의 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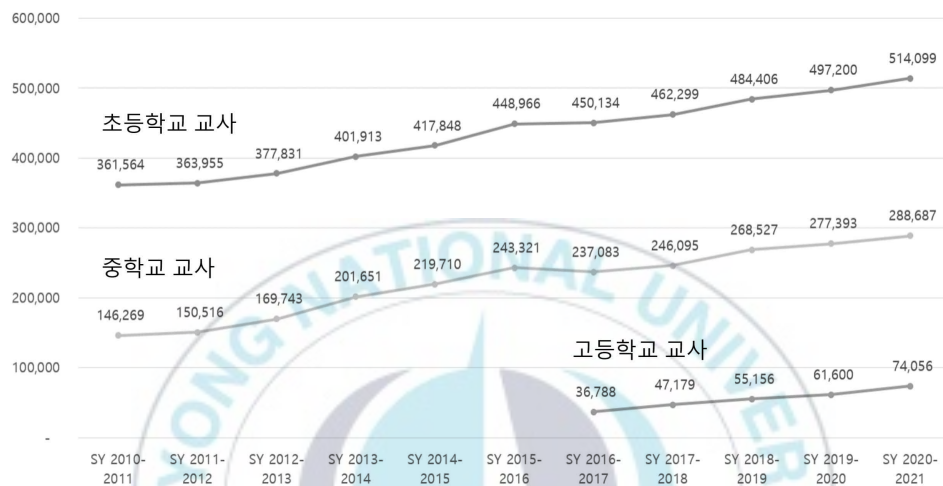
출처: OECD, PISA 2018 데이터, 표 1.B.

PISA 2018에서도 학생 1인당 누적 지출 측면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출이 PISA 시험 점수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필리핀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

필리핀은 헌법에 의해 정부가 가장 높은 비율의 예산을 교육에 할당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전히 ASEAN 국가 중 교육 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필리핀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는 교육 예산안을 전체 예산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16%)로 제출했지만, 그동안의 예산안과 집행 금액의 차이가 컸으므로 실제 사용금액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2년의 교육 기간 증가에 따른 증가하는 학생 수에 대비하여 필리핀 정부는 학교 교사 인원을 증폭시켰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교사 수는 증가하였다.

< 그림20 : 공립학교 교사 수 >



출처 - 필리핀 통계청 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 지역에 치중되어 교사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전역의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교사 수가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첫 학년을 도입한 이후 2020-2021년까지 2배 증가하였다. K+12 학제 이후 신규 교사가 증가했다.

아래 표?는 필리핀 교육부(DepEd)의 직원 분포를 나타낸다. 전체 직원 중 88%가 교직원이고, 5%가 교직 관련 직원이다. 전체 교직원 중 46%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

< 표7 : 필리핀 교육부의 직원분포 >

	교원(ALS 포함)	교육 관련 인력	비 교직원
중앙 사무실			1,297
지역 사무소			2,097
사업부			22,657
고등학교	67,291	4,747	9,844
중학교	276,778	16,680	21,249
초등학교	503,396	30,441	9,183
소계	847,465 (88%)	51,868 (5%)	66,327 (7%)
총계			965,660

출처: Bureau of Human Resources & Organizational Development (January 2021) 재구성

지난 20년 동안 교원의 연간 성장률은 6.77%였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두 가지 주요 범주의 직원, 즉 학교와 행정 사무소 모두에서 서비스 계약 또는 기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개인과 공립학교에서 약 8,205명의 지방 정부 지원 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3. 졸업 후 취업 연계의 한계

학제 개편 전 필리핀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아키노 정부는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를 기술과 직업이 불일치라 여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K+12 학제로 구현했다. 필리핀의 고등학생은 학업 트랙 이외에도 기술트랙, 예술트랙, 스포츠 트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역 사회와 산업계에 요구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더불어 학생들이 졸업 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학제 개편 전,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면 필리핀 국내에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ASEAN과 다른 선진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학생들이 필요한 자질을 2년의 추가 교육 동안 가르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술 불일치 문제는 학제 개편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 2년 동안 기술을 배울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수요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 탓에, K+12 학제를 졸업하면서 국가 자격증을 갖췄음에도 기업은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게 된다.

“교육 기간 2년만 늘어난거나 다름 없어요. 어차피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을 진학해야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뽑아주지도 않아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 공립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urora

“고등학교에서 기술 트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회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원하는 것을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니까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대학에 간다고 보다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가르치기에 나는 대학을 선택했어요. .” - 사립학교 12학년, Josh

이러한 현상으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학업 트랙을 선택하여 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하게 된다. 기업은 인재가 없어 채용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자격증까지 갖췄음에도 보다 인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제 개편 전에 정부가 주장했던 현실과는 반대된다. 그저 대학 진학까지 2년이 늘어난 것 뿐이다.

기술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많은 고용주들이 여전히 고등학교(SHS) 졸업생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JobStreet.com의 2020년 데이터에 따르면 최대 35%가 SHS 졸업생을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41%는 확신이 없었다. 고등학교(SHS)졸업생을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 중 33% 이상이 자신이 제공한 일자리는 대졸자에게만 제공된다고 밝혔고, 25%는 고등학교(SHS) 졸업생이 제공한 일자리에 완전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이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배울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어느 회사가 좋아라 할까요? 학교의 실습실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술의 이론만 학습하고, 실습을 해보지 못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 대학을 가지 않고도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 공립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urora

“고등학교 졸업 후 즉시 취업 보장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 바공실랑 4) 공립학교 12학년, Brian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의 2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노동계에 진입하는 반면, 여전히 절반 이상인 70%가 계속 취업을 준비하고

4) Bagong Silang(바공실랑)은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 위치한 행정구역인 바랑가이(우리나라의 동 개념) 중 하나이다.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노동 시장에서 불충분한 일자리가 널려있는 만큼 취약한 경제이다. K+12 학제 졸업생들을 배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업이나 교육 일자리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것과 SHS 졸업생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긴밀한 일치를 얻기 위해 정부가 커리큘럼, 특히 기술 트랙을 산업계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게 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보완해야 한다.



IV. 교육현장에서의 ‘모두를 위한 교육’의 딜레마

제4장은 교육 현장에서 동형화와 어떤 괴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왜 필리핀이 동형화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지 교육 현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필리핀의 교육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 지역 간 격차, 일반적인 빈부격차가 필리핀의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필리핀만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동형화되어야 하지만, 실제 양상은 그러지 않았다.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외적 동형화로 학제가 변경되었을 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 지역 간 격차, 일반적인 빈부의 격차에 따라 적응 능력의 차이를 보였다. 다른 자원을 가진 학교가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격차가 커진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 지역 간 격차, 일반적인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동형화가 잘되지 않고, 그로 인해 K+12 학제가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않음을 교육 현장에서 발견하였다. 본 장에서는 세 가지 격차 가운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에 주목하여, 교육 인프라 확충 문제, 교원 수급 문제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동형화로 인해 확대되는 교육의 격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시작이었지만 다수가 탈락할 수 밖에 없었던 필리핀의 교육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학교 인프라 확충과 정부 제정의 문제

교육 현장에서 학교 인프라에 관해 살펴보았을 때, 교육 예산이 증가하고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제 개편 이전에도 지적되었던 학교 인프라의 개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학제 개편 초기에 많은 학교들은 부족한 교실, 부적절한 실험실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위원회(CHED)의 권장으로 주립대학과 단과대학에서 고등학교(SHS)교육을 할 공간을 제공받기도 했다. 이후 각 학교 자체적으로 부족한 학교 인프라를 확충했고, 학교 인프라는 각 학교가 가진 역량에 따라 개선되었다. 다른 자원을 가진 학교가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인 가장 큰 차이는 교실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여전히 저희 반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대략 40명 정도 있어요. 교실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희(학생)가 많기 때문에 한 반을 사용하는 인원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 공립학교 11학년, Kevin

“교실을 늘릴 공간이 없어서, 원래의 교실을 두 개의 교실로 쪼개었다고 했어요. 원래 한 교실에서 60명 정도 있었고, 지금은 반으로 쪼개어진 교실에 50명이 공부해요. 교실은 좁은데, 친구들은 많아서 수업을 들을 때 공기가 답답한 것 같아요. 많이 덥기도 하고요.”

- 바공실랑 공립학교 12학년, Brian

“K+12 학제로 바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입학할 때, 건물이 완성되어서 11학년과 12학년은 새 건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교실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에어컨이 없는 건물을 사용했는데, 추가로 만든 건물에는 에어컨이 있었고 교실도 더 좋아졌어요.”

- 사립학교 2018년 졸업생, Jenny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교실을 확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12학년까지 가르쳐야하니 교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하지만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교실만 확충되었어요.”

- 공립학교 교사, Gloria

각 학교는 그들의 사정에 맞게 부족한 교실을 확충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실을 쪼개기 해서 교실을 확충하고 있었다. 이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인다.

교실 이외에도 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 책상과 의자 등의 교육 자원들 역시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교실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12 학제로 개편되었으면 교육 예산이 늘어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부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보다는 무언가를 build 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산업도 좋지만 교육에도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 사립학교 교사, Irene

“교육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한 번은 교육 예산을 공립학교 교사들 유니폼을 맞추게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유니폼이 필요한게 아닌데 말이죠... 교육 예산으로 교사들 유니폼을 맞추다거나 다른 행정적인 것들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 공립학교 교사, Bradleys

“K+12 학제로 개편된 이후에 매년 커리큘럼이 바뀌고 있어요. 매년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교육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인 우리와 학생들 모두에게 꽤 도전적이에요. 우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해요. 저는 교육과정 안내서를 따르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해야해요.”

- 공립학교 교사, Sarah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학생들의 등록이 계속 증가하면서, 공립학교의 교육 자원은 끊임없이 부족해졌다. 교실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는 매년 업데이트 되는 수업 커리큘럼을 위한 수업 연구비도 지원받기 어렵다. 매년 추정되는 교육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GDP의 4%가 되지 않았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의 교육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 예산이 추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도 교육 예산을 아이들의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 유니폼 등 부가적인 행정비에 사용되던 교육비용을 학습의 교재 연구나 여전히 부족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2. 제도변화 없는체로의 교원 수급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교사들이 K+12 교육과정의 요구에 대비해야 할 것을 고려할 때, 교원 양성 기관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 중 하나로 보인다. 고등학교 2년의 추가 기간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추가 교사들의 필요성도 절박하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필리핀 공립학교의 교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확충되는 교사가 새로운 학제의 내용을 가르칠 지식과 전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K+12 학제로 개편되고 11학년과 12학년을 가르칠 교사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학제 개편 초기에는 제가 원래 가르치는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 과목을 가르칠 때에 많이 어려웠어요. 저도 사범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 공립학교 교사, Sarah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회계 및 비즈니스 관리 (ABM) 전공이었어요. 그 당시에 회계 과목을 가르쳐주시던 ‘회계 담당’ 선생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저희에게 사회 과목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회계 과목도 가르쳐주셨어요.”
- 사립학교 2018년 졸업생, Jenny

기존의 교사들은 대부분 국어, 수학, 과학, 영어와 같은 일반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학제가 개편되고 새로운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신설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지자,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맡기기도 하였다.

기존의 교사가 새롭게 신설된 11학년과 12학년 커리큘럼을 가르치기에는 부적절하다. 교사들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교육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커리큘럼에 추가되는 과목들을 다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이 교사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육학 교육과 신설된 과목에 관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과목에 한하여 새로운 교육 자격증 시험을 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학제로 바뀌고 난 이후로 매년 커리큘럼이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바뀐 커리큘럼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매년 바뀌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은 버거워요. 너무 잦은 변경으로 해야할 준비가 과도한 것 같아요. 충분한 세미나가 뒷받침된다면 커리큘럼이 변경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공립학교 교사, Sarah

또한 기존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충분한 세미나와 훈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교수법에 부족함을 느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 교사 면허가 없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필리핀의 전문규제위원회(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PR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진행된 교사 면허 시험의 합격률은 20%였으며, 2018년 합격률은 22%였다. 이 합격률만 보더라도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동료 교사 중에 임시 교사가 있어요. 아직 전문 교사 면허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는데, 5년 안에 응시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응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대요.”

- 공립학교 교사, Bradleys

학제를 개편한지 10 년이 지났음에도 필리핀은 자격을 갖춘 면허증을 소유한 교사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부(DepEd)는 K+12 법에 따라 임시 교사가 5년 이내에 전문 교사 면허 시험(Licensure Examination for Professional Teachers, 이하 LEPT)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무면허 교사가 고등학교(SHS)에서 전문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임시 교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0년에 시험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자, 상황을 감안하여 CSC는 2017년에 처음 고용된 임시 교사를 포함하여 1년 더 임명 연장을 허가했다. 다시 말하자면, 5년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재배치된 고등학교(SHS) 임시 교사의 임명 연장을 허가했다. 2018년 K+12 학제의 첫 졸업생이 나오고 지금까지 전문 교사 면허가 없는 일부 임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교사 연수의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교사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이해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 자격을 갖춘 교사 부족, 매년 증가하는 학생 수, 그리고 불충분한 교실 자원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개선을 준비하고 정상화하는 것, 그리고 실제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죠.”

- 사립학교 교사, Irene

코로나 상황으로 면허 시험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험 등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면허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임시 교사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교사들의 직무 수행은 학생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에, 교사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에 큰 역할을 한다. 기초교육 등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은 교사 교육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교사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전 세계의 선례를 바탕으로 필리핀의 교원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3. 동형화로 인한 교육 격차의 확대

ASEAN+2015가 시작되면서, ASEAN 10개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의 흐름이 자유로워졌고, 각 국의 사람들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회원국의 모든 종류의 고용이 필리핀 지원자들에게 개방되었고, 노동자들이 다른 ASEAN 국가로 더 쉽게 이동하고, 또 흡수되도록 하였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할 수 있는 ASEAN 지역의 다른 나라 출신의 구직자들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10년 학제를 12년 학제로 개편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학업 트랙 뿐만 아니라 취업 트랙도 만들었다. 이는 필리핀이 국제 프레임에 동형화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취업 트랙이 작동하기까지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적 동형화로 학제가 변경되었을 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는 적응 능력의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4가지의 트랙으로 운영되는 만큼, 각 학교의 준비도 중요해졌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각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PIDS(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의 201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경로와 분야를 제공할 준비가 된 학교가 거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학년도에 학교의 7%만 4개 이상의 트랙을 제공할 수 있었다. 같은 해, 38%의 학교는 단 한가지 트랙만 운영할 수 있었다.

“우리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 고등학교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트랙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을에 있는 학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많이 멀었기 때문에 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해야했어요.

- 공립학교 11학년, Matt

“교육비의 부담이 그나마 적은 집 근처의 공립학교로 진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트랙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들어서, 입학 전에 고민을 했어요.”

- 사립학교 11학년, Pamela

시간이 지난 지금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4개의 트랙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소수의 학생만이 합리적으로 다양한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전공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다른 트랙으로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공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어요.”

- 공립학교 2018학년도 졸업생, Rose

“사립학교의 등록금과 교육비가 너무 감당이 되지 않아서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학을 갈 수 없었어요. 공립학교에는 제가 전공하는 트랙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사립학교에 남을 수 밖에 없었어요”

- 사립학교 12학년, Trina

다양한 트랙 중 어떤 트랙이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트랙에 선택할 수 없다. 전공을 선택한 이후 새로운 트랙으로 변경하기란 쉽지 않다. 고등학교(SHS) 학생들이 자신의 트랙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랙을 선택한 이후에는 다른 전공을 배울 기회를 박탈 당한다. 다른 트랙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트랙이 없을 경우 집에서 먼 곳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비싼 돈을 내야하는 사립학교에 입학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취업 연계를 위한 트랙을 가진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았다. 모든 취업 트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드물었다.

“저는 자동차 전공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론만 배우고 있어요.”

- 공립학교 12학년, Ryan

“저는 베이킹을 전공하고 있어요. 원래 저희 학교에는 반죽을 하고 베이킹을 돕는 기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기계의 결함이 생겼고 여전히 수리하는 중이라 베이킹에 필요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요. 기계가 언제 수리될지 모르겠어요...”

- 공립학교 11학년, cindy

베이킹 전공을 가진 학교에 베이킹을 위한 시설이 없었고, 자동차 전공을 가진 학교에서는 실습을 할 실습 교실이 갖춰지지 않았다. 다른 자원을 가진 학교가 학제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격차가 커진다.

4. ‘모두를 위한 시작’, 그러나 ‘다수’의 탈락

EFA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권 실현을 목표로 유아교육부터 초등교육, 문해교육, 직업기술 교육훈련을 포괄하는 전 세계 교육 운동이다(KOICA ODA 교육원, 2016). 1990년 태국 줌티센에서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의 회의가 열렸고, ‘모두를 위한 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을 채택했다. 전 세계의 문맹 퇴치와 초등교육 보편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KOICA ODA 교육원, 2016).

필리핀은 EFA와 새천년 개발 목표(MDGs)라는 개념으로 제시된 교육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틀을 인정했다. 1990년대 이래로 세계 공동체는 빈곤 완화와 인간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의 역할을 인간의 발전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와 관련된 개념이 국제적으로 소개되었다.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의 가치를 강조했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87년 필리핀 헌법의 개혁은 기초 교육을 의무화했다. 공립학교의 초등교육은 무료로 의무화되었고, 공립학교의 중등 교육은 의무화되지는 않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헌법 개혁은 필리핀 국민들이 기초 교육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EFA는 교육의 접근성과 교육 기회 증가에 초점을 둔다(김지인, 2023). EFA의 목표에는 교육 사회학의 관점은 결여되어 있고, 개발도상국의 교육에 대한 인적 자본 접근법에 기초한다. EFA의 목표에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가의 발전을 돕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교육이 불평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김지인, 2023). 교육불평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내 변동성이 발견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인적자본접근에서 벗어나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의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필리핀의 K+12 학제 또한 교육의 접근성과 교육 기회 증가를 위한 교육으로 ‘모두를 위해’ 시작되었다. K+12학제가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EFA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고 국가의 발전을 도울 있음과 동시에, 교육이 불평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리핀의 다양한 변수들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 지역 간 격차, 일반적인 빈부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화 되었을 때에는 필리핀 내 불평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탈락률(dropout rate)을 가진 국가이다. 2019년 Borgen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중퇴율을 기록했고, 초등학생의 6.38%, 중학생의 7.82%가 중퇴했다. 필리핀의 탈락률은 K+12 학제로 변경된 이후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가했다. 필리핀의 2016년 연례 통계 자료에 따르면 6~24세 필리핀 학생 중에서 5명 중 1명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들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는 16세에서 24세 사이였다. 6학년의 학생의 8%가 졸업하지 못하고, 중학생의 18%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이들은 결혼 및 가족문제(42.3%), 교육의 높은 비용과 재정적 문제가 20.2%, 개인적 흥미 부족이 19.7%, 구직을 위해서가 7.0%를 차지 했다. 필리핀의 2017년 연례 통계 자료에 따르면 6~24세 필리핀 학생 약 3,920만 명 중 약 9%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다. 결혼 또는 가족 문제가 37%, 개인적 흥미 부족이 24.7%, 교육의 높은 비용과 재정적 문제가 17.9%, 구직을 위해서가 8.4%를 차지 했다. 주목할 점은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중 학교를 다니다가 탈락한 학생들이 86%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KPL(Kabataan Party-List)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은 향후 2년 동안 200,000 페소 (약 450만원)을 지불해야한다. 수업을 듣는 동안 100(약 200원)에서 150 페소(약 300원) 정도의 식비와 교통비를 계산하면,

연간 20,000페소(약 40만원)에서 30,000페소(약 60만원)를 더 필요하다. 공립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이지만, 교복 및 교과서와 같은 학용품 및 기타 비용을 계산하여 부모에게 부담하는 10,000 페소 (약 2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한 가정에 자녀가 많은 필리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 한 자녀에게 1년간 들어가는 공교육 비용이 2년이 추가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전국민민변호사연맹은 K+12 학제는 일반적인 정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특히 추가 교육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교육에 대한 접근을 재정의하도록 설정되었다. 교육에 대한 인권 행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공립학교가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고질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 체제는 오히려 교육 탈락자만 증가시킬 뿐이다.

V. 결론

전 세계에서 10년 학제를 유지했던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두 나라와 필리핀이 유일했다. 필리핀은 엘리트 사회로 흔히들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필리핀의 특징은 오랜 시간 10년 학제를 유지하게 했다.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서 학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를 가르치는 K+12 학제가 탄생하였다. 유치원 교육의 의무화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모국어로 수업을 가르치게 되었다. 추가된 2년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학업 트랙 이외에도 기술 트랙과 예술과 스포츠 트랙이 신설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 자격증도 발급하고 있다.

학제 변경 이후 필리핀의 교육 환경 역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교육의 세계화에 동형화되기 위하여 필리핀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 첫 번째로, 국제 평가에 참여하지 않던 필리핀은 국제 평가에 참여하여 국제 경쟁력을 검증받고 있다. 필리핀은 세 가지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 순위로, 각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았다. 세 가지 평가에서 공통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여자아이들의 성적이 남자아이들보다 낮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아이들의 성적이 남자아이들의 성적보다 우수했다. 하지만, 지역 간의 격차, 학교 유형별 격차가 컸다. 도시의 학교에서 지방에 있는 학교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자원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통으로 언급되었다. 국내에서는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교육 예산을 늘리고 교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각 학교는 예산을 확보해 교실을 확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공

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차이가 있다. 사립학교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교실을 확보하는 것에 반하여,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실을 쪼개기 해서 교실을 확충하고 있다. 교실 이외에도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원들 역시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교실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의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취업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취업 교육을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아니었다. 기술의 불일치로 인하여 많은 고용주가 여전히 고등학교 졸업생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하듯 필리핀의 교육 현장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숙제가 남았다. 매년 교육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예산을 확충해야 하며, 교육 예산을 부가적인 것이 아닌 필수적인 곳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교사의 수는 증가했지만, 모두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부족하기에 임시 교사를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하고 있다. 전문 자격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고 있으므로 교사 자격시험을 매년 진행하고, 임시 교사 채용 제도를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교사도 새로운 커리큘럼에 따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를 없애고, 새로운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면 재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교육 양성제도의 변화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필리핀에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어려울 것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교육의 접근성과 교육 기회 증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필리핀의 새로운 학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교육비의 증가로 인해 다수의 탈락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다양한 전공 트랙을 개설하여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시도했으나, 실제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과 거리가 멀고, 모두에게 교육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트랙의 수가 달라졌고, 트랙 안에서도 시설 등이 달랐다. 이러한 면에서 모두에게 교육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필리핀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 도시와 지방의 차이, 일반적인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했다. 이러한 필리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표준화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자의 적응 능력이 달라 동형화되는 과정에서 교육 격차가 발생했다. 이번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한 도시와 지방의 차이와 빈부 격차는 향후 연구해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학제가 개편되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필리핀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같은 양상일지는 모르는 일이다. 추후 다른 양상으로 필리핀의 교육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고,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필리핀의 새로운 학제에 대한 옳다 그르다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학제 개편 이후 2018년에 최초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이후 졸업생들이 배출된 기간은 짧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이슈도 존재했다. 따라서 필리핀의 학제 개편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성급하다.

그럼에도 K+12학제는 확실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가능한 한 빨리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지 파악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늘리고, 교육 기회를 증가시키면서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육부(DepEd)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자,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과정일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 강경애. (2019). 평생교육 기관의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 분석 연구: 춘천시 소재 평생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19, Vol.25, No.1 pp. 23-53.
- 김기범, 장덕호. (2019). 대학 교수학습센터(CTL) 20년 운영 과정 분석: 신제도의 동형화 이론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1), 43-53.
- 김동엽·정법모. (2012). 필리핀 대학교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개혁방향. *동남아시아연구*, 22(3), 77-110.
- 김성식·류방란. (2008).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가정 배경, 학생 노력, 학교 경험의 영향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2), 31-51.
- 김양분. (2010). 학력격차의 변화 추이 및 해소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 (2004). 지식기반사회의 학제 발전과제. *지식기반사회의 학제 발전과제 토론회*, 3-68.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화. (2006). 학제의 사회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33, 123-142.
- 김용. (2006). 학제 개편과 교육과정: 쟁점과 그 해결 가능성, *교육행정학연구*, 24(4), 289-312
- 김지인. (2023). 필리핀과 베트남에서의 계층화된 끈기와 학업성취도: 교육분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일. (200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불평등. *뉴 레디컬 리뷰*, (10), 11-30.
- 박주현. (2021). 필리핀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분석과 시사점 탐색.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2, No. 2
- 배다연, 유지수, 김은지, 이주은, 이주희. (2022). 코로나19 시기 원격등교에서 나타난 고교 유형별 교육 불평등 실태와 함의. *경제와사회*, 187-239.

- 윤선구. (200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 이경애. (2016). Post-2015 개발 의제의 원주민 교육에서 본 필리핀 원주민 교육정책 : 중부 루손의 아이타(Ayta)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국제학박사학위논문
- 이영호. (2009). 대학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 의미와 유형 분석. 비교교육연구, 19(3), 61-77.
- 이창길. (2008). 세계화 과정에서 정책의 동형화(Isomorphism) 메커니즘 분석:인력감축, 정보공개 및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제46권4호)
- 이현정. (2020). 워싱턴 컨센서스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 21, 11(5), 1-12.
- 정용교. (2010). 필리핀 학교교육의 실태와 특징: 산베다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0(2), 101-103.
- 정장훈, 조문석, 장용석. (2011).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1(2), 179-215.
- Abulencia, A. (2015). The unraveling of K-12 program as an education reform in the Philippines. Sipatahoenan. 229 - 240.
- Abisaki. (2015). Education for development: Towards a holistic approach to curriculumimplementation in Kenya. Journal of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6), 59-63.
- Adarlo, G., Jackson, L. (2017). For Whom Is K+12 Education: A Critical Lookinto Twenty-First Century Educational Policy and Curriculum in thePhilippines. In S. Choo, D. Sawch, A. Villanueva, & R. Vinz (Eds.), Educatingfor the 21st Century.
- Alberto, R. P., Gabinete, S. G. (2014). Levelling up to asean community 2015: basic education reforms in the philippines.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al Reform(pp. 123-135). Retrieved April 27, 2018, from
- Barlongo, C. (2015). Reforms in the Philippine education system: The K to 12 Program.
- Jessie S. Barrot, Ian I. Llenares, Leo S. del Rosario. (2021). Students' online learning challenges during the pandemic and how they cope

- with them: The case of the Philippines.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2021) 26:7321 - 7338
- Bongco Roxanne, David Adonis. (2020). Filipino teachers' experiences as curriculum policy implementers in the evolving K to 12 landscape. *Issues in Educational Research*, 2020, Vol 30(1), 19-34.
- Bongco Roxanne, Abenes Rodrigo D. (2019). Clash of Spheres - The Paradox of Being a Female Teacher in the Philippines. *Beijing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1(2-3):443-459
- Bivens, F., Moriarty, K. and Taylor, P. (2009) Transformative Education and its Potential for Changing the Lives of Children in Disempowering Contexts. *IDS Bulletin* 40(1): 97-108
- Campbell. John L. (2001). Institutional analysis and the role of ideas in political economy. *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 Analysis*. 159-89.
- Celia M. Reyes. (2018). Leaving no one behind: Reducing Inequality of Opportunities.
- Chapman, D. W., Adams, D. (2002). The quality of education: Dimensions and strategies (Vol. 5, Ser. 2002).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 Charanchi AA. (2011). A Study of Influence of Mother-Tongue, Teacher's Qualification, Gender and Experience on Performance in Primary School Mathematics in Katsina State. *Journal of Research in National Development*. Vol. 9 No. 2 (2011).
- Chimombo, Joseph Patrick Godson. (2015). Quantity Versus Quality in Education: Case Studies in Malawi.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v51 n2-3 p155-172 May 2005
- Collins, R. (1971). Functional and conflict theories of educ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6), pp. 1002~1019.
- Cooper H., Nye B., Charlton K., Lindsay J., Greathouse S. (1996). The effects of summer vacation on achievement test scores: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 Research, 66(3), 227 - 268.
- Cruz, E. S. (2015). Phl needs K+12 now. *The Philippine Star*
- Dacumos, R. (2015). Philippine colonial education system.
- Davies Bronwyn, Bansel Peter. (2007). Neoliberalism and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Volume 20, 2007 -Issue 3 : Neoliberalism and education
- DiMaggio, Paul J., Walter W.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147-60
- DiMaggio. (1991).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 Edita A. Tan. (2017). Quality, inequality and recent education reform. *The Philippine Review of Economics* Vol. LIV No. 2, December 2017 pp. 110-136
- Editha S. Pagulayan, Jay Emmanuel L. Asuncion, Antonio I. Tamayao, Rudolf T. Vecaldo, Maria T. Mamba, Febe Marl G. Paat. (2021). The value of economic and cultural capital to college readiness among Filipino senior high school gradu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Evaluation and Research in Education (IJERE)* Vol. 10, No. 1, pp. 174~184.
- Edwin B. Estrera. (2020). A Perception-Based Curricular Review on the K+12 HUMSS Strand Curriculum. *IAFOR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in Education* Volume 8, Issue 4.
- Emma García, Elaine Weiss. (2019). The teacher shortage is real, large and growing, and worse than we thought.
- Entwisle, D. R., & Alexander, K. L. (1992). Summer setback: Race, poverty, school composition, and mathematics achievement in the first two years of scho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1), 72 - 84.
- Eirene P. Mesa. (2007). *Measuring Education Inequality in the Philippines*

- Orbe, J. R., Espinosa, A. A., Datukan, J. T. (2018). Teaching Chemistry in a Spiral Progression Approach: Lessons from Science Teachers in the Philippines. *Australi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3(4).
- Ganimian, A. J., Murnane, R. J. (2016). Improving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Lessons from rigorous impact evalu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6(3), 719 - 755.
- Glewwe, P., Muralidharan, K. (2015). Improving school education outcomes in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knowledge gaps, and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on Improving Systems of Education*.
- Isidro, A. (1957). Philippine education- Social reconstruction through the schools. *The Phi Delta Kappan*, 39(3), 119-123.
- Jessie Grace Sannadan, Pinky Larcelle D. Lang-ay. (2021). Neoliberal Restructuring in Philippine Education: Towards Performa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terature and Social Sciences* Vol-6, Issue-1.
- Jessie S. Barrot (2021): K+12 curriculum reform in the Philippines: towards making students future ready,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 Spring, Joel (2009). *Globalization of Educ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 Kremer, Michael. (2003). Randomized Evaluations of Educational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Some Less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3 (2): 102-106.
- Krizia Magallanes. (2018). 필리핀의 K+12 학제개편 과정 분석: 2013년 기본교육강화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rizia Magallanes, Nwe Nwe Htun, 장수연, 정제영. (2021).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System Reformation in the Philippines and Myanmar. *비교교육연구*, 31(5): 179-212
- , (2021) A Policy Analysis of Philippine School System
- Krizia Magallanes., Jae Young Chung, Sunbok Lee. (2022). The

- Philippine Teachers Concerns on Educational Reform Using Concern Based Adoption Model
- Krizia Magallanes, Jae Young Chung, Jang, Suyeon. (2022). Reform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EJER)*; Issue 96, p136-152, 17p
- Lapus. (2008). Structure of the Philippine Educational System
- Lewin, K, F. Caillods. (2001). Financing Secondary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Strategies for Sustainable Growth. Paris
- Llego, M. (2017). Legal Bases of Philippine Educational System.
- Vivien Lowndes, Mark Roberts. (2013). Why Institutions Matter: The New Institutionalism in Political Science.
- Maria Mamba, Antonio Tamayao, Rudolf Vecaldo. (2020). COLLEGE READINESS OF FILIPINO K+12 GRADUATES: INSIGHTS FROM A CRITERION-REFERENCED TES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2020 Vol. 8, No. 4, pp. 625-637.
- Mary Dane F. Leonardo. (2021). COVID-19 유행으로 인한 도전 하에서 실시된 웨비나의 보편적 학습 설계(UDL) 준수 정도에 대한 필리핀 과학 교사의 인식과 교사 자기 효능감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Meyer, John W., Brian Rowan.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340-63.
- Meyer, John, (1987). The World Polity and the Authority of the Nation-State. pp.41-70 in G. Thomas et al. (eds.). *Institutional Structure: Constituting State, Society, and the Individual*. Newbury Park: Sage.
- (1996). The Changing Cultural Content of the Nation-State: A World Society Perspective. In George Davis Steinmetz (ed.), *State and Culture*.
- Mincer, Jacob.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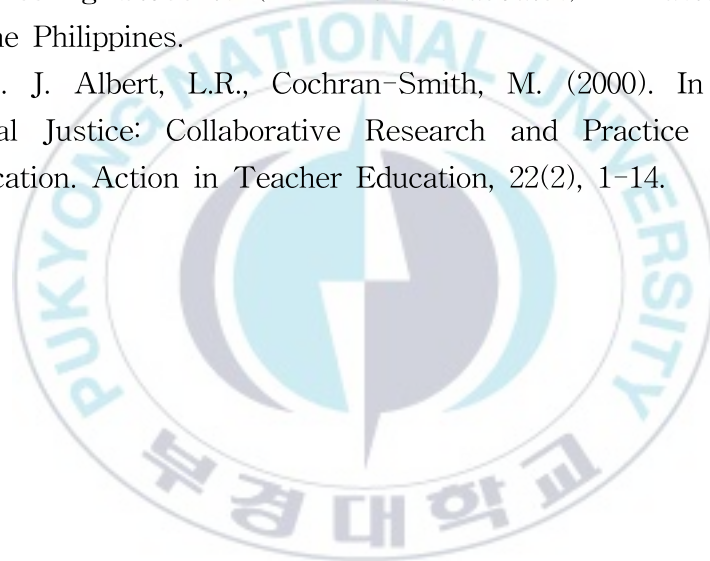
- Musa, S., Ziatdinov, R. (2012). Features and historical aspects of the Philippines educational system. *Europ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2(2), 155-176.
- Naci John C. Trance, Lowe Ana Marie L. Trance. (2018). Embracing the K+12 Curriculum: Accounts of Philippine Teachers and Students. *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 Nakanishi, Toru. (1990). The Market in the Urban Informal Sector: A Case Study in Metro Manila, the Philippines. *Developing Economies* 28, no. 3: 271 - 301.
- (1991). *Suramu no Keizaigaku : Firipin ni okeru Toshi Infōmaru Bumon (Economics of the Slum: the Urban Informal Sector in the Philippines)*.
- Noel Christian A. Moratilla. (2019). Revisiting Paulo: Critical Pedagogy and Testimonial Narratives as Liberative Spaces in the Philippines' K+12 Curriculum.
- OECD. (2012). *Equity and Quality in Education: Supporting Disadvantaged Students and Schools*.
- Okabe, M. (2013). Where does Philippine education go? The "K-12" program and reform of Philippine basic education.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ETRO*, (425).
- Oliver(1991).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1): 145-179.
- Orbe, J. R., Espinosa, A. A., & Datukan, J. T. (2018). Teaching Chemistry in a Spiral Progression Approach: Lessons from Science Teachers in the Philippines. *Australi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3(4).
- Oxford Business Group. (website). The Philippine government works to implement its K-12 programme while raising educational standards
- Patricia Anne R. (2019). San Buenaventura.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Education Equality in the Philippines. International Workshop on Data Disaggreg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Perez, Renante B. (2018). BECOMING SUCCESSFUL K+12 IMPLEMENTERS: OPERATIONAL PREPAREDNESS OF SENIOR HIGH SCHOOLS IN HAGONoy, BULACAN, PHILIPPINES.
- Porferio M. Almerino Jr., Lanndon A. Ocampo ,Dharyll Prince M. Abellana, Jana Gloria F. Almerino, Irene O. Mamites, Lilibeth C. Pinili, Janine Joy L. Tenerife, Regina E. Sitoy, Limuel J. Abelgas, Emerson D. Peteros. (2020). Evaluating the Academic Performance of K+12 Students in the Philippines: A Standardized Evaluation Approach.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Volume 2020.
- Ricardo, D. Ma. Nolasco. (2008). “The Prospects of Multilingual Education and Literacy in the Philippines.” In *The Paradox of Philippine Education and Education Reform: Social Science Perspective*, edited by Allan B.I. Bernado. Quezon City: Philippine Social Science Council, 133 - 45.
- Roxanne T. Bongco, Adonis P. David. (2020). Filipino teachers’ experiences as curriculum policy implementers in the evolving K+12 landscape. *Issues in Educational Research*, 30(1).
- Rudolf T. Vecaldo, Antonio I. Tamayao, Maria T. Mamba, Jay Emmanuel L. Asuncion, Febe Marl G. Paat, Editha S. Pagulayan. (2020). Academic Profile and College Preparedness of K+12 Graduates: The Case of the Indigenous Peoples (IPs) in the Northern Philippines. *Journal of Education and e-Learning Research* Vol. 7, No. 4, 437-445.
- San Juan College. (2013). About SJC.
- Sannadan, Lang-ay. (2020). Neoliberal restructuring in Philippine Education; toward performativity
- Sarvi, Jouko,Munger, Fredi,&Pillay, Hitendra. (2015). Transitions to

- K-12 education systems: Experiences from five case countries. Asian Development Bank, Philippines.
- Scott, W. Richard. (2001).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Foundations for Organizational Science*: Sage Publications Series.
- Sison, J.M. (2015). *APEC's Neoliberal Offensive and its Effect on the Philippine Education*.
- Spring, Joel. (2009). *Globalization of Educ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 Edita A. Tan. (2017). Quality, inequality and recent education reform. *The Philippine Review of Economics*. Vol. LIV No. 2, December 2017 pp. 110-136
- Teresita D. Tajolosa, Juvie Parreno, Ric A. Tajolosa. (2022). *TRANSITIONING TO K-12: ESL CLASSROOM CLIMATE AND EFFECTS O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MOTIVATION TO LEARN*.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 Studies*. Vol 18, No 2 (2022)
- Tanodra, Elena Q. (2003). *Philippine Educational System*. Quezon City: Verh Educational Enterprise.
- Trance N. J. C., Trance L. A. M. L. (2018). Embracing the K-12 curriculum: accounts of Philippine teachers and students," in *Proceedings of the 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vol. 1254, no. 1,
- Teresita D. Tajolosa, Juvie Parreno, Ric A. Tajolosa. (2022). *TRANSITIONING TO K-12: ESL CLASSROOM CLIMATE AND EFFECTS O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MOTIVATION TO LEARN*.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 Studies*, 18(2), 648-664; 2022
- Toby Carroll. (2010). *Delusions of Development. The World Bank and the post-Washington Consensus in Southeast Asia*.
- Torre Villas, D. M. (2017). *Where to, Philippine education? The Philippine*

Star

- Trinidad Jose Eos. (2020). Material resources, school climate, and achievement variations in the Philippines: Insights from PISA 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 Van de Werfhorst, Herman .G., Jonathan J.B. Mijs. (2010). “Achievement Inequality an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Educational Systems: A Comparativ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407-428.
- Wenceslao Perante. (2022). Mathematical Readiness of Freshmen Engineering Students (K+12 2020 Graduates) in Eastern Visayas in the Philippines.
- Zollers, N. J. Albert, L.R., Cochran-Smith, M. (2000). In Pursuit of Social Justice: Collaborative Research and Practice in Teacher Education. *Action in Teacher Education*, 22(2), 1-14.



발표자료 및 연구 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 목표4 교육 2030.
- 한국교육개발원. (2020). 코로나 시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지원 방안 (IP2020-0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2012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연구자료 ORM 2012-115-5) (검색일: 2021.05.30.)
- ADB. (2020). ADVANCING THE K+12 REFORM FROM THE GROUND - A CASE STUDY IN THE PHILIPPINES. ADB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 ADB. (2022). Foundational (K+12) Education System:Navigating 21st Century Challenges
- Philippines Government. (2010). “State of the Nation Address of His Excellency Benigno S. Aquino III President” (검색일: 2022.04.22.)
- UN. (2000).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
- UN(2012). 「The future we wa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88
- UNSECO. (2009). Philippines Education For ALL 2015: Implementation and Chanllenges (검 색 일: 2022.04.21.)

단행본

- 김용 (2015). 신자유주의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세계화, 시민성, 민주주의. 서울:학이시습 출판사
- 유홍준·정태인(2013). 신경제 사회학,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하연섭(2016).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제2판), 서울: 다산출판사.
- KOICA ODA 교육원 (2016).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서울: 시공미디어

필리핀 관련 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rticle XIV
- RA 7687 -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ct of 1994
- RA 7796 - Governance of Basic Education Act of 2001
- RA 9155 - Higher Education Act of 1994
- RA 7722 - Free Public Secondary Education Act
- RA 6655 - Government Assistance to Students and Teachers in Private Education Act
- RA 6728 - Science and Technology Scholarship Act of 1994
- BP 232 - Education Act of 1982